

13-1-113

자료번호	111
제 호	100

北韓의 對外宣傳에 관한 研究

보 관 용
(판 다 카) 1/4

1973. 6. .

국 토 통 일 원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년 6월 일

연구기관 동 아 일 보 사
안보·통일문제 조사연구소

연구위원

책임자 宋 建 鎬

위원 鄭 然 權 · 李 錫 烈 · 鄭 亨 壽

序 論	3
1. 宣傳의 一般的 概念	3
2. 對外宣傳, International Communication, 對外弘報	7
3. 對外宣傳의 一般的인 原則	9
4. 共產主義 對外宣傳의 分析	12
第1章 北韓의 對外宣傳	17
1. 北韓의 對外宣傳의 基本方向	17
2. 北韓의 對外宣傳 遂行機構	18
3. 北韓의 對外政策의 變化와 對外宣傳 方法의 變化	23
A. 北韓對外宣傳樣相의 變化	24
B. 北韓의 對外宣傳活動의 方法	32
第2章 北韓의 對日宣傳政策	43
1. 對日宣傳의 基本方向과 目標	43
2. 宣傳組織實態	52
A. 概 況	52
B. 朝總聯組織	56
C. 宣傳煽動現況	70
D. 日本의 反應	74
3. 結 言	78

第 3 章 北韓의 對東南亞 宣傳政策 概況	85
第 4 章 北韓의 地域別 對外關係	89
1. 北韓의 對中·蘇 關係	89
2. 北韓의 對美洲 關係	94
3. 北韓의 對西歐 關係	98
4. 北韓의 對「아프리카」, 中東 關係	101
5. 北韓의 對「유엔」 關係	105
結 論	109

序 論

1. 宣傳의 一般의概念

宣傳 (Propaganda) 이란 말은 여러가지로 定義를 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좁힐 수 있다. 宣傳이란 言語的 혹은 象徴的手段을 計劃的 組織的으로 操作 多數의 사람들의 潛在的行動 (態度 , 信念 , 價值 등) 에 統制를 가하거나 變容함으로써 窮極的으로 사람들의 顯在的 行動을 一定한 豫期된 方向으로 誘導하는 것을 目的으로한 教化 (indoctrination) 를 위한 意圖的 行爲이다. (1)

宣傳은 宣傳하는 宣傳主体 (Propagandist) 와 宣傳客體 (propagandee) 로 大別되는데 宣傳主体에 따라 政治宣傳, 廣告로 나누어지고 政治宣傳은 對內宣傳과 對外宣傳 (International propaganda 또는 International Political Propaganda) 으로 나눌 수 있다.

政治宣傳이라 함은 특히 輿論에 영향을 주어 輿論을 一定한 豫期된 方向으로 誘導하기 위한 組織된 企圖(2)로 定義할 수 있는데 宣傳의 定義를 한개의 定式으로 압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政治宣傳도 한개의 定式으로 압축할 수 없다. 政治宣傳은 첫째 대단히 複雜해서 어떤 部分에 대해서는 充分히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그자체 生理的 精神的 無意識的인 mechanism 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고 둘째 그 原理는 科學的이고 어떤면에서는 審美的

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精巧한 것이기 때문이다.

对内宣传은 自国内에서 自国の 大衆을 教育시키고 동시에 政府의 決定과 政策을 周知시켜 国民들로 하여금 政府가 意圖하고 있는 一定의 方向 즉 国家目標로 動員시키기 위한 것이며 对外宣传은 外国政府와 国民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뒤에서 詳論)

Propaganda의 語源인 Latin語의 Propagare는 原来 “씨를 뿌린다” 혹은 “接木한다”는 뜻이 있으며 宣传이란 概念에서 使用되기는 1622年 教皇 Gregory 15世가 海外에서의 布教目的으로 布教委員會 (Sacra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를 設立, Propaganda라는 말을 使用하면서 부터였으나 現在의 宣传이란 概念에 가까운 뜻으로 쓰여진 것은 19世紀 初였다. 1842年에 發刊된 W. T. Brande의 科学, 文学, 芸術辭典에 의하면 “宣传이란 秘密結社들이 政府가 嫌惡하고 反對하는 意見이나 主義를 傳播하는 것이며 上流社会에서는 이들 秘密結社를 非難하는 政治的 用語로 使用하는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最初의 对外宣传은 Bible에서 볼 수 있는데 L. John Martin 같은 学者는 이미 旧約聖書에 기브온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여호와에 의해 이스라엘백성에게 約束되어진 땅이라고 믿게 한 Joshua의 說教를 对外宣传의 始初로 본다.⁽²⁾

传道師들을 最初의 对外宣传者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言語가 다르고 種族이 다른 外國을 상대로 전도를 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바 있는 유명한 Congregatio De Propaganda는 세계

최초의 宣傳者의 本部 (the first propagandistic headquarters for the then known world)였는데 이 기구는 敎도릭敎會가 宗敎改革者들의 主張에 対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30年 戰爭 (1618 ~ 1648)의 결과에 따라 特히 당시 스웨덴으로부터 新敎徒들이 일종의 新聞形式을 통해 공격하기 시작한 데에 對備하기 위한 것이 었다.

그러나 프랑스 革命때까지 宣傳은 強力한 힘으로 認識되지 않았고 無視되기 일수였는데 宣傳이 戰爭遂行上 必要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는 프랑스 革命軍에 의해서였다. Robespierre 은 革命軍兵士들에게 프랑스는 “全世界를 解放하기 위해 싸운다”는 口號를 의위 戰場에 내보내도록 했고 프랑스 國民議會도 그들의 自由를 위해 싸우는 모든 國民을 돕겠다고 約束했다. 이에 대해 英國은 즉각 反撥했다. George 5世는 “프랑스의 이같은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高貴한 憲法을 破壞하려는 企圖이며 우리들의 秩序와 심지어 政府까지를 전복하려는 짓”이라고 공박하고 이어 議會에서 “프랑스의 企圖는 中立國의 權利를 無視하고 外國에서 混亂을 惹起시킬려 할 뿐아니라 征服과 自己擴大를 꾀하는 것이라고 非難했다. George 5世의 이같은 非難에 대해 프랑스의 宣傳을 Cromwell의 行위에 比較하면서 聯合國의 프랑스에 대한 不法干涉에 對항한 報復에 不過한 것이라고 応酬했다. 이 事件이 國家間에 對外宣傳을 意識토록한 最初의 事件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00 유럽의 주요국가들 사이에 強力한 힘으로 심지어 神話로까지 받아들여진 것이 輿論 (public Opinion)이었다. 1900는 大衆運動의

時代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소유령에서 대중운동이 활발했는데 Slogan, Rumor, Campaign 이 各國에 서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c 중엽은 Kent Cooper 의 말처럼 유럽은 新聞支局의 時代 (News agency epoch) 로 변해 유럽도처에 各國 주요 新聞社의 특파원들이 취재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体系的이라고 할 수 있는 對外宣傳이 始作되기는 第1次 世界大戰때 부터이다. 이때부터 總力戰은 敵을 肉體的으로 쓸어뜨리는것뿐 아니라 敵의 마음까지를 빼앗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같은 생각은 無線電信이 發明되고 普遍化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리고 1次大戰말기에는 영화가 주요한 宣傳미디어로 活用되는데 영화를 처음으로 活用한 나라는 獨逸이었다. 1920年代 중엽에 이르면 宣傳은 유럽대부분의 國家에서 그들의 政策遂行에 하나의 必要한 手段으로 생각하게 되며 短波 送受信器의 開發은 對外宣傳을 보다 활발히 遂行할 수 있게 하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담당하게 되는데 1930年代 이후 라디오방송은 對外宣傳에서 Message를 傳達하는 가장 重要한 手段이 되었다.

Hitler 는 이모든 利用할 수 있는 미디어를 活用, 宣傳을 하는데 狂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第2次大戰에서 모든 宣傳的인 道具와 테크닉이 心理戰의 武器로 利用됐었다. Thomas O. Beachcroft 같은 學者는 “ 第2次大戰은 어떤 意味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한 宣傳戰이었다 ”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이다.

2. 对外宣传, International Communication, 对外弘報

2次大戦이 후 특히 1950年代에 들어오면서부터 使用하기 始作한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란 말과 对外弘報 (International Publicity 또는 Overseas Publicity)란 말에 대한 간단한 개념 규정을 해둘 必要가 있을것 같다.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은 國家間 또는 國境을 넘어 國民과 國民間에 이루어지는 communication 過程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어떤 學者들은 International Communication과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을 區別,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은 文化가 다른 民族間的 思考와 意味를 交換하는 過程으로 보고 다른次元에서 해석하고 있으나 (獨逸의 Gerhard malezke 같은 學者)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廣義로 해석, 이속에 Intercultural Communication까지를 포함시켜 國家間的 文化交流, 技術協調, 低開發地域에 대한 基礎教育등의 모든 過程은 물론 外交官에 의한 政府間的 交涉, 通信社간의 記事取材 및 配布, 旅行客에 의한 外國의 印象, 外國에 配布된 冊子, 藝術品, 영화까지도, 이밖에 企業間的 國際的 商行爲, 宗教의 布教行爲, 貿易聯盟, 商工会議所, 政黨등 國際壓力團體 (International Pressure Group)들의 活動, Ford財團등이 펴고있는 (인도등지에서) 博愛主義的 救濟事業등 國家와 文化的境界를 넘어서 意識的 또는 無意識的으로 퍼지는 情報와 說得의 無數한 過程을 통털어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의 범주에 넣어도 觀瞻을것 같다 (Bruth LaneS Smith의說).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의 研究는 특히 1945年서부터 1955年에 이르는 期間동안 주로 미국을 中心으로 政府에 의해서 추진되고 研究作業이 지원 되었으며 그밖에 西獨, 英國, 프랑스등도 미국처럼 대규모적인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研究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같은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海外宣傳의 概念과 嚴格하게 區別하기는 어렵다. 宣傳을 앞서 定義대로 " 言語的 혹은 象徴的 手段을 計劃的 組織的으로 操作, 多數의 사람들의 潛在的 行動에 統制를 가하거나 變容함으로써 窮極的으로 사람들의 顯在的 行動을 一定한 予期된 方向으로 誘導하는것을 目的으로 한 教化를 위한 意圖的 行爲" 로 定義하는 한편 對外宣傳을 國家間的 宣傳으로 보고 物理的 힘을 사용하지 않고 輿論에 影響을주어 상대방 國家의 政府나 國民의 意見이나 態度에 變容을 갖게해 一定한 予期된 方向으로 誘導하는것이라고 定義한다면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나 對外 宣傳을 같은 뜻의 用語로 볼수있을것이다. 한편 對外弘報와 對外宣傳의 意味上的 差異를 찾아본다면 弘報 (Publicity)란 告知, 說得, 啓蒙등의 作用을 包含한 周知活動인데 때로 Public Information, Public Relations란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行政官庁이 施策이나 業務등을 國民에게 公表, 理解를 求할려는 Public Information을 말하는것으로 定義할수있다.⁽⁴⁾

이렇게볼때 對外弘報라고하면 한 國家가 다른國家나 國民을 상대로 政策에대한 理解를 求하는것이 目的이므로 對外弘報도 廣義의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나 對外宣傳에 包含시킬수 있게 되는것이다.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나 对外弘報라는 用語는 2次大戦後에 등장한것으로 2次大戦을 치루면서 对外宣傳의 莫強한 힘을 다시 한번 認識한 強大國들이 戰爭이 끝나자 宣傳이란 用語가 用기는 좋지못한(부드럽지못한) 紐앙스에서 벗어나 불려는 데에서 새로 使用하기 시작한 말이다. 그러므로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나 对外弘報의 backbone은 政府間의 宣傳인것이다.

对外宣傳에 있어서 宣傳主体는 國家이며 宣傳客体도 國家이므로 对外宣傳의 目的은 國家利益이다. Eisenhower 前 美國 大統領은 그의 memorandum (1967年刊)에서 美國의 对外宣傳의 任務를 "美國을 最大 民主國家로 同一視시켜 世界의 리더쉽을 意識케하고 美國의 政策을 좌절시키려는 企圖를 노출시키는데" 이라고 지적했었다.

3. 对外宣傳의 一般的인 原則

对外宣傳의 一般的인 原則은 宣傳의 一般的인 原則을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다. 对外宣傳이란 앞에서도 지적한것처럼 宣傳主体와 客体에 따라 區別되어지는것이며 宣傳의 原理에 따라 區別되어지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对外宣傳의 目的을 한마디로 要約하면 國家利益을 위한 International Consensus를 얻는것이다. (5) International Consensus를 얻기위해 現代의 对外宣傳은 科學的인 體系아래에서 수행되어져야 하고 動員할수 있는 모든 手段을 動員하면서도 동시에 眞摯하게 実行되어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宣傳은 技術이지 科學이 아니라고 말하고있으나 現代的인 技術自体가 科學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宣傳은 科学과함께 움직이어야하며 宣傳의 成功여부는 宣傳이 科学的이나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까지 말할수있으며 宣傳이 局限된 少数人士를 대상으로 하거나 트릭 (trick) 을 專門으로 해야한다는것은 時代錯誤이다. (6)

對外宣傳은 다른國民과 國家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國民多數가 어떤 意見에 說服되었다면 그 宣傳은 成功한것인데 宣傳을 效果的인것으로 하기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한다. ① 宣傳은 이미 情報가 存在하고있는 態度에 대해서는 이를 補強하고 豊富하게 할수 있다. (7) 사람들은 그들의 先入見을 補強시켜줄수있는 情報를 찾으며 그들이 옳았다는 情報를 찾아내어 어차피 자신이 취할 行動의 근거로 삼기를 원한다. 投票行爲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個人들은 그들이 贊成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宣傳으로 하여금 자기의 信念을 補強토록 하여 投票행위의 動機를 이루도록 하고있다. ② 宣傳은 새로운 이슈에 대한 새로운 態度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하며 때로는 固定된 態度를 變更시킬수 있다는것이다. 宣傳者가 새로운 이슈에대해 별로 아는것이 없는 사람들의 關心을 끌어 그들의 態度를 變化 시킨다는 것이다. 對外宣傳이 특히 新生國 國民의 態度形成에 큰 영향을 줄수있다는것은 이 事實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一部 學者들은 宣傳의 限界性을 지적하고있는데 이는 對外宣傳의 道具인 매스 미디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것처럼 그렇게 強力한것이 아니라는 研究結果에서 出來한다. 이들 學者들은 매스 미디어가 특정한 狀況아래에서는 效果的인 說得 수단이지만

宣傳의 일차적 能力은 다른데 있기때문으로 지적하고있다. 첫째로 情報자체는 이미 固着된 態度를 變更시키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점이다. Joseph T. Klapper 같은 學者는 그의 저서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에서 매스컴에서 人間은 자신의 態度를 堅持하기 위한것만 接觸하고 (Selective Exposure) 자기의견과 동일한것만 知覺하며 (Selective Perception) 자기의 態度와 一致되는것만을 잊지않고 오래 지속한다 (Selective Retention)고 주장했다. 많은 社會科學者들에 의해 通說化되고 있는 이 主張은 만약 어떤 態度를 취하고 이 때문에 그가 人格的 통일성을 유지하고 만족하게 社會에 적응한다면 아무리 숙련된 科學的인 宣傳이라도 그의 態度를 變更할수없다는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사람들이란 그들이 同意하지 않는 情報로 부터 자신을 보호할려하며 또는 그런 情報는 곧 잊어버리거나 그 반대되는 情報를 발견할려 한다는것이다. 한 世代이상동안 共產主義 教育을 받은 東歐의 사람들이 共產主義에 대한 信念을 아직 定立하지 못하고 있는 事實을 例를 들고 있다.

그러나 對外宣傳이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 매스 미디어가 投票行爲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分析하는식으로 短期的인 效果만을 가지고 測定되어질수는 없는것이고 對外宣傳은 科學的으로 끊임없이 大量으로 反復되어지는 것이기때문에 매스 미디어에서 오는 限界性은 認定하지만 對外宣傳의 波及效果에 대해서는 否定할수없다.

對外宣傳을 效果的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다음 12개 사항을 지적할수 있다.

- ① 宣傳의 內容이 眞實일것 .
- ② 輿論의 支持를 받을것
- ③ 宣傳을 宣傳으로 끝내지말고 行動을 뒷받침 할것 .
- ④ 強力하고 創造的인 leadership을 확립할것 .
- ⑤ 効率的이고 統一的인 宣傳組織을 갖출것 .
- ⑥ 國家政策의 一貫性이 宣傳에 담겨질것 .
- ⑦ 國家目標가 宣傳의 目的에 부합될것 .
- ⑧ 우수한 宣傳家를 양성할것 .
- ⑨ 政府各機關의 協助가 이루어질것 .
- ⑩ 戰略的 宣傳과 戰術的 宣傳의 연관성
- ⑪ 精確, 신속, 풍부한 情報를 가질것 .
- ⑫ 면밀한 目標분석과 效果의 評価.

4 . 共產主義 對外宣傳의 分析

쏘련의 強力한 對外宣傳의 힘을 가리켜 " 宣傳을 戰爭에 利用 成功한것은 聯合國이지만 宣傳을 國際政治의 무대에 등장시켜 재미를 본것은 쏘련이다 " 라고 말할정도로 쏘련은 強力한 對外宣傳을 벌이고있다. 또 러시아에 共產主義國家를 세운것은 Lenin의 宣傳의 힘이라고 말할수있을 정도로 共產主義國家와 宣傳은 不可分의 것이다.

共產主義의 對外宣傳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쏘련의 對外宣傳을 分析해야 하므로 北韓의 對外宣傳을 分析하기 위해서도 먼저 쏘련의 對外宣傳을 分析하는것이 첩경이다.

北韓의 對外宣傳의 原則도 共產主義宣傳原則 즉 朝鮮의 宣傳原則을 따르면서 北韓의 戰略 및 戰術에 따라 약간 變形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한 國家의 對外宣傳의 目的은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武力을 使用하지 않고 國家利益을 追求하기 위한 International Consensus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外交를 通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對外宣傳은 國家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外交를 보다 效果的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수있다. 共產主義의 目標은 窮極적으로 世界를 赤化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對外宣傳도 이런 角度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데 朝鮮은 그들의 對外宣傳의 목적을 「朝鮮 블록結束의 強化와 資本主義諸國에 있어서 孤立者, 平和愛好傾向을 지원하는 國民解放戰爭의 能力을 向上시키고 이에따라 西方側을 혼란시키는 한편 西方側 大國의 권위를 失墜시키고 힘을 弱화시켜 窮極적으로 資本主義의 崩潰를 촉진시키는것」⁽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朝鮮의 革命戰略 및 戰術을 간단히 살펴보면 朝鮮의 革命戰略 및 戰術이 그대로 朝鮮의 對外宣傳의 基本 戰略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Stalin에 依하면 朝鮮의 革命戰略·戰術은 프로레타리아 階級鬪爭의 指導學이며 具體적인 戰略은 當面의 革命段階에 따른 프로레타리아의 主要 공격의 方向을 定하고 여기에 맞추어 革命的勢力의 配置案을 策定, 當면의 革命期 全體를 통해 計劃을 위해 鬪爭하는 것이며 戰術은 比較的 短期間에 걸친 運動의 干滿, 革命의 一進一

退에 대비하고 프롤레타리아가 대처할 方針을 정해 지금까지의 鬪
争形態와 組織形態를 調節함으로써 이 方針의 수행을위해 鬪争하는
것이다. 그래서 戰術은 戰略의 一部이며 戰略에 從屬하며 戰略을
받드는것이며 運動의 干滿에따라 變化하는것이라고 說明되어지고 있
다. 이어 Lenin에 의하면 革命의 勝利는 단지 前衛만으로서는
얻을수없으며 階級全体 및 一般대중의 支持가, 적어도 中立的態度를
얻지않으면 勝利는 얻을수 없으며 또 얻을수있다손 치드라도 별로
意味가 없다. 大衆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宣傳과 선동만으로서는
불충분하며 大衆自身들의 政治的經驗이 必要하다. 大衆이 經驗에
의해 革命的 立場에 서도록하는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革命戰術이란 各段階에 対応한 戰略的 勝利를 위한 여러가지
의 鬪争形態와 鬪争組織의 올바른 運用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다.

이같은 소련의 革命戰略 및 戰術은 對外宣傳의 原則 그대로라고
말할수있다. 위에서 본 Lenin이나 Stalin의 생각에서 알수있는
것처럼 共產主義者들의 宣傳은 「말」뿐만 「行動」까지 수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軍事的戰爭과 政治的戰爭을 區別할수는 어렵다. 行
動의 第一歩는 일꾼을 얻고 이 일꾼을 鬪争組織의 中核으로 키워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렇게 얻어진 일꾼을 全世界的인
組織으로 넓혀 世界革命의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 하는것이 소련의
對外宣傳이다.

소련의 對外宣傳活動은 国内宣傳活動과 마찬가지로 党 中央委員會
의 宣傳선동부가 매스 미디어를 통한 對外宣傳活動을 統制하는 한편

外交, 軍事, 文化, 經濟등 모든 分野를 통해 여러가지 方法으로 目標을 달성하려고 努力하고있다. 또 COMINFORM, 世界勞動組合聯合, 民主主義 青年世界聯合, 民主主義婦人世界聯合, 스톡홀름 世界平和 아펠 등 각가지 國際的組織과 國家的事象을 잡아 國際輿論에 호소하기위해 努力하고 있는것이다. 對外 宣傳의 手段으로는 新聞, 라디오, 映画 各種 出版物등을 사용하는것은 對內宣傳과 같으며 海外宣傳에 있어서도 가장 效果的인 手段으로는 新聞을 꼽고있는것 같다. 이밖에 文化的 活動으로 Voks (海外文化交流總聯合會)가 國立觀光局의 協助로 海外의 朝鮮友好協會와 일정한 접촉을 가지면서 文化的인 活動을 통해 對外宣傳을 수행하고있는데 Voks는 交流의 機關일뿐 아니라 在朝鮮 外國人의 監視機構의 일도하고있다.

朝鮮의 對外宣傳이 效果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理由를 다음 3가지로 要約할수 있다.

- ①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不条理를 宣傳의 メッセージ에 담아 그 메시지를 믿을수있게 한다.
- ② 宣傳이 大量이며 동시에 強烈하다.
- ③ 輿論이 그 自体의 特性으로 實像과 虛像을 認識하기가 어렵다.

第1章 北韓의 對外宣傳

1. 北韓의 對外宣傳의 基本方向

北韓의 對外宣傳의 基本原則이 對外宣傳의 一般的 原則에 따르고 있음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北韓의 對外宣傳의 目的은 北韓의 利益을 追求하기 위해 International Consensus 를 얻기 위한 것이며 國家利益을 追求하기 위해 International Consensus 를 얻기 위해서는 外交라는 現實手段을 使用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各 國家는 對外宣傳을 國家利益 -國家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外交活動을 보다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潤滑油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角度에서 北韓은 그들의 利益을 追求하기 위해 International Consensus 를 얻기 위한 基本方向을 어떻게 提示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必要가 있다.

北韓은 朝鮮노동당 規約前文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範圍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北韓의 당면목적은 韓半島 全体를 共產主義로 統一하여 共產主義社會의 實現인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基本立場으로부터 出發한것이 北韓의 對外宣傳의 基本原則인 것이다. 이러한 基本原則 밑에서 즉 南韓을 赤化統一하기 위해 諸般條件造成의 하나로 國際社會에 있어

서 北韓의 地位를 向上시키고 相對的으로 韓國의 地位를 下落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外交目標을 要約하면 ①한반도 赤化統一의 기반조성 ②國際社會主義 革命力量強化 ③國際的 地位獲得으로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外交目標가 바로 北韓의 對外宣傳目的인 것이다.

2. 北韓의 對外宣傳遂行機構

北韓의 對外宣傳 遂行機構는 蘇聯과 마찬가지로 黨의 嚴格한 統制를 받으며 對外宣傳機關들은 黨의 一元的 統制와 指導를 받으면서 黨이 指向하는 宣傳政策을 遂行하는 것이다. 北韓의 對外宣傳活動을 考察하기 위해서는 共產主義 宣傳活動의 本山인 蘇聯의 宣傳活動 및 宣傳機構를 分析할 必要가 있음은 앞에서도 지적했는데 北韓의 對外 宣傳機構體系는 蘇聯의 그것과 類似하다.

北韓의 對外宣傳機構는 便宜上 計劃機關, 執行機關, 支援機關으로 나눌 수 있으나 「公職者는 누구든지 宣傳者이다」라는 스톨젠처럼 모든 段階에서 宣傳活動이 展開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北韓의 對外宣傳政策은 對內宣傳과 마찬가지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決定하여 중앙당 선전선동부가 선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당 중앙위원회의 통제를 받은후 예하 각급 선전부서에 하달하고 계획에 의한 정확한 집행 여부를 확인 감독한다.

여기에서 對外 對內宣傳의 中樞的 役割을 遂行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北韓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도 蘇聯에서 빌려온 機構이다. 선전선동

부는 당 指導部가 決定한 大局的인 目標 및 당면의 目標를 有効하게 達成하기 위해 輿論을 形成하고 動員하는 責任을 갖고 있다. 선전선동부는 党 政府 및 党的 감독아래에 있는 公共機關이 輿論을 움직이기 위해 행하고 있는 広汎하고 多樣的 諸活動을 統一하고 그것에 中心的 方向을 주는 것이다. 선전선동부는 党 중앙위원회에 의해 採用되는 基本的인 政策決定範圍안에서 모든 对内, 对外的 宣傳活動에 대해 一般的인 方針과 特定の 行動方向등을 決定한다. 그러나 선전선동부는 宣傳의 執行機關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政策의 設定과 그 政策이 党和 政府에 의해 또는 매스 미디어를 실제로 운영하는 公共組織에 의해 실시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선전선동부의 活動은 광범위한 視野를 갖고 对内宣傳에 있어서는 全國的인 水準에서, 对外宣傳에서는 國家利益을 追求하는 水準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선전정책에 따라 作成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計劃은 北韓의 內閣을 통해 집행되어진다. 对外宣傳은 특히 党 國際부와 緊密한 유대아래에서 活動이 이루어지며 「党 國際부는 对外宣傳을 總 指揮하는 位置」에 있다.⁽⁹⁾

对外宣傳의 執行機關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외무성

외무성은 省의 首位로서 외무상이 있으며 외무상은 내각의 成員인 동시에 직무상 내각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相은

자기권한 안에서 필요한 省令 또는 規則을 공포할 수 있다.

외무성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항상 노동당 국제부의 緊密한 連結 아래에서 당의 지시와 統制를 받는다. 외무성은 民間外交·非政治的인 對外活動등도 전담하고 있다. 외무성은 相 1名, 副相 約간명, 10局 2處, 2部도 組織되어 있다.

(2) 對外文化連結協會

1956年 4月 党 및 內閣의 외곽단체로 創設되었다. 北韓은 1955年 4月의 반둥회의를 계기로 北公産국 일변도의 外交를 지양하고 中立国 또는 新生國家들과의 연계를 맺는 多邊外交로 전환했는데 1956年 2月 蘇聯이 第20次 党大會에서 平和共存路線이 採択되자 적극적인 多邊外交로 전환했다. 이러한 정책전환에 따라 정부간의 接觸에 앞서 民間外交 또는 친선단체들의 交流, 文化活動등을 主임무로 하고 있으며 對象은 國交關係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을 主對象으로 하고 있다. 이협회는 위원장 1명, 約간명의 부위원장이 있고 그아래 실무기구가 있는데 이 협회는 各 「친선협회」를 관장하고 있다. 72年말 現在 이협산하의 친선협회는 30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무역성

공산권 國家와의 經濟的 協同精神으로 貿易關係의 發展과 調節, 對중립국에 대한 政治的 經濟的 침투 그리고 對西方經濟的 利害關係를 앞세운 무역관계의 개선 내지 拮據를 圖謀하는 임무를 받는다. 여기에서는 주로 政治的 經濟的 침투를 위한 手段으로서 對外宣傳을

수행하는 것이다.

(4) 國際貿易促進委員會

對外經濟委員會의 實質的인 執行機關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北韓과 정식 외교기관이 없는 國家들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회는 무역 관계개설, 무역회담, 상품전시회개최, 參加海外貿易業체와 北韓内の 貿易상사와의 업무연락등을 하고 있다.

(5) 中央通信社

北韓의 유일한 通信社로 內閣直屬機關이며 對外的으로는 蘇聯의 타스通信, 中共의 新華社通信과 송수신 계약을 맺고 있다.北韓의 對外·對內宣傳政策을 報道하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이며 선전선동부에서 실시하는 宣傳政策의 전파에 중요한 一翼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日刊 朝鮮중앙통신사, 사진통신, 영문통신, 英語와 露語로된 朝鮮소식을 발행하고 있으며 「조선중앙연감」도 여기에서 발행하고 있다. 중앙통신사의 기구중에 海外支社, 海外特派員을 담당하는 副社長이 있으며 對外報道編輯局은 副主筆이 장악하고 있다

(6) 朝總聯 (第3章에서 詳述)

大略 위에서 살펴본 對外宣傳의 집행기구를 통해서 對外宣傳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같은 對外宣傳은 支援機關의 運用으로 더욱 效果的인 宣傳을 꾀하려고 企圖하고 있다.

지원기관으로서는 해외공관 대외문화연람협회의 現地 친선협회, 또는 각종 친선단체, 金日成 노작연구소 등으로서 노동당에서 하달된 宣傳方針에 따라 宣傳活動을 벌리는 것이다. 이밖에 지원기관으로 공보관 및 중앙통신사의 해외특파원, 무역성의 통상대표부 등을 들 수 있다.

- 註 (1) 社会学辞典, 日本 有斐閣 P 552
- (2) 政治宣傳, 잔마리·도르나그, 小出峻訳, pp 16
- (3) International Propaganda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hn C. Merrill, International Communication, P 178
- (4) cf. 社会学辞典, P 242
- (5) 心理戰爭, 岩島久夫, 日本講談社新書 P 32 ~ 33
- (6) Propaganda, Jacques Ellul, P 3 - 4
- (7) People's Choice, Paul F. Lazarsfeld, P 87 ~ 93
- (8) 1967年 4月 카르로비 바리에서 세계 공산당 정상회의에서
- (9) 北韓의 海外宣傳機構와 最近活動現況, 金炳文, 國際問題 1973年 7月号

3.北韓의 對外政策의 變化와 對外 宣傳方法의 變化

北韓의 對外政策의 基本路線은 階級革命과 世界共產化의 必然性和 當爲性을 主張하는 「맑스-레닌」主義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 韓半島의 赤化統一이라는 궁극적인 目標에는 變化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70年代에 접어들면서 특히 最近에 이르러 그들의 對外關係의 展開型態와 努力에는 중대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北韓의 對外姿勢의 變化는 71年11月15日의 勞動黨第5期第3次 全員會議에서 「國際情勢에서 提起된 當面한 諸問題의 戰術的轉換」을 確認함으로써 그 方向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71年7月 「닉슨」美大統領의 中共訪問決定이 發展된 後에 開催된 同會議에서 北韓은 아마도 당시의 國際情勢를 다음과 같이 評價한 것으로 짐작된다.

一. 美國의 對中共接近政策추진과 병행하여 「닉슨·독트린」이 적극적으로 展開되겠지만 「아시아」에서의 美軍의 軍事的役割은 계속 存続할 것이다.

一. 日本은 軍備增強으로 어느 정도의 再軍備는 促進할 可能性이 있지만 그러나 軍事的海外侵略은 予見되지 않는다.

一. 中共의 國際舞台進出이 더욱 活潑해질 것이며 美·中共間의 關係改善으로 그와같은 氣運을 더욱 길어질 것이다.

一. 蘇聯의 「아시아」進出은 中共과 끊임없는 마찰을 자아낼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또 美國의 後退와 日本勢力의 견제를 目的

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같은 情勢評價下에 北韓은 美·日·蘇·中共의 四極体制形成 過程에서 從來 友邦國이었던 美·日間에 모순이 들어날 것으로 보고 中蘇의 對美·日政策이 北韓에 有利한 方向으로 이끌게 될 것으로 판단하는 一方 中·蘇對立으로 中蘇兩國의 對北韓軍事支援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評價했을 것 같다.

따라서 北韓은 이와같은 情勢判斷을 기초로 周邊 國際情勢의 變化에 適應, 편승하여 多面的인 總力外交를 展開함으로써 中·短期的 實利를 걸우어야 하겠다는 政策目標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北韓의 對外政策의 性格變化는 그들이 追求하고 있는 對外行爲選定에 있어 流動性和 伸縮性이 수반된 戰略과 戰術適用이 불가피하게 되어 對外的으로 國際情勢의 變化추세에 適應하기 위해 多樣한 政策的 配慮를 모색하게 되었다.

여기서 北韓의 對外政策의 基本戰略을 要約한다면 中蘇兩國을 비롯한 共產諸國과의 政治, 經濟, 軍事, 文化關係의 유대강화와 反西方 특히 反美戰線의 強化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의 經濟, 文化關係의 交流擴大등으로 北韓의 國際的 地位向上과 相對的으로 韓國의 立場 弱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A·北韓對外宣傳樣相의 變化

한편 北韓의 對外宣傳의 基本政策의 韓半島의 궁극적인 共產化를 위한 客觀的 條件을 造成하려는 外交目標에 귀일시키는데 있다

고 보겠다.

그래서 北韓은 이러한 目標實現을 위해 ①共產 및 中立諸國과 反帝·反植民主義를 내세워 유대관계를 強化하고 自由陣營國家들에 대해서는 底辺으로부터 파고들어가는 소위 人民的團結을 강화하는 原則下에 宣傳指針을 策定하고 있으며 ②核当地域 國家의 특수한 情勢發展을 감안하여 그에 편승 容함하며 ③北韓의 發展相과 平和 이미지 扶植에 注力하는 對外宣傳政策을 採択하고 있다.

그런데 北韓의 對外政策의 基本戰略이 변모됨에 따라 北韓의 對外宣傳의 樣相도 變化를 일으키고 있는것 같다.

특히 7.4 共同聲明發表를 계기로 北韓의 對外宣傳方式에 變化를 엿볼 수 있는데 그 몇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一. 金日成 個人의 偶像化宣傳이 7.4 以後에 현저히 減少되었다. 그대신 金日成의 平和三原則과 社會主義體制의 優越性宣傳에 置重하게 되었다.

金日成 個人偶像化宣傳은 특히 先進 民主國家 國民들에게 잘 理解가 안될뿐더러 그와같은 獨裁者에 대한 個人崇拜宣傳은 오히려 厭症과 嫌惡感마저 자아내게 하여 逆效果를 낸다는 點을 認識하게 됨으로써 그와같이 宣傳方法을 轉換하게 된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이것은 金日成에 대한 偶像化 宣傳이 对内用과 对外用으로 区别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一. 北韓은 7.4 以後에 平和宣傳에 또한 力點을 두고 있는데 以前엔 非現實的인 平和統一方案을 계속 되풀이 宣傳해 왔었지만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속에서 現狀維持를 基반으로 하는 世界秩序가

定着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그와같은 實現可能性이 없는 상투적인 統一論이 國際社会 특히 韓国の 有關強大國들에게 說得力을 發揮할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젠 南北對話를 계기로 南北韓間의 감정적인 平和共存을 뜻하는 南北韓間의 平和協定締結, 相互減軍, 聯邦制등을 主張하면서 또 한편으론 6.25 南侵등에서 露呈된 北韓의 好戰的 侵略的 印象을 불식하고 平和愛好, 平和志向的인 印象을 扶植하려고 하고 있다.

北韓의 勞動新聞은 지난 4月 23日 『北韓은 北韓에 대해 友好的인 어떤 國家와도 外交關係를 樹立할 것이며 平等과 相互尊重의 原則에서 政治, 經濟關係를 開發하고 있다』고 報道했는데 이것은 北韓이 國際的 孤立狀態로 부터 脫皮하여 広範한 國際的 支持를 얻으려는 底意에서 이와같은 對外政策表明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一, 従来の 大韓民國의 合法性을 否認하던 態度를 바꾸어 이제는 北韓이 韓國과 同等한 地位를 갖고 있다는 方向으로 그 立場을 轉換시키고 있다.

北韓의 國際的 地位가 韓國보다 훨씬 뒤지고 있다는 것을 北韓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韓國의 合法性 否認이라는 역시 國際社会에서 說得力없는 非現實的인 主張을 後退시켜 두개의 韓國觀을 主張하게 됨으로써 韓國과의 同等한 地位를 獲得하려고 하고 있다.

一, 7.4 声明直後 韓國에 대한 誹謗이 減少되는듯 했었으나 最近에 또다시 非방을 再開했다는 사실인데 처음에 비방을 減少한 것은 7.4 声明을 充實히 이행한다는 印象을 内外에 주기 위한

제스추어인것 같은데 비방을再開하게 된 理由는 첫째 10月維新을 통한 韓國의 國內体制의 鞏固化에 當황하여 나타나는 反作用이라고 여겨지며, 둘째 이러한 体制強化에 利用당하지 않으려는 情勢判斷에서 나온 反撥이 아닌가 생각된다.

一. 對美, 對「유엔」姿勢에 伸縮性을 보이고 있다는 點

北韓의 宣傳文句 自体에 있어서는 여전히 對美非難에 별로 두드러진 變化를 찾아 볼수 없지만 具體的 事例를 통하여 對美姿勢에 있어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가장 두드러진 例가 美國의 言論人을 招請하여 그들로 하여금 美國社會에 北韓의 實情을 소개토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엔」에 대해서는 從前엔 「유엔」이 美國의 強占機關이라고 비방 「유엔」의 權能을 거의 否認했었는데 이제 「유엔」의 機能을 部分的으로나마 認定하는 態度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유엔」의 決議에 依한 韓國의 唯一合法性을 取消시키고 「유엔」內의 支持 同調勢力을 擴大시켜 可能하면 今秋 「유엔」總會에 韓國과의 同時 招請을 企하려고 하고 있다.

一. 北韓의 對日姿勢의 變化

北韓은 統治手段의 하나로서 民族的 感情의 誘引과 權力の 合理化를 위한 象徴的 의미로서 反日本姿勢를 늘 宣傳의 材料로 使用해 왔었다.

그러나 그들의 宣傳手段으로서의 對日本強硬姿勢는 반드시 一般의 人 것만은 아니었다. 즉 北韓은 日本의 左翼勢力들에게 계속

미소로 接近해왔으며 日本의 右翼 執權黨에 대해서는 강경한 敵對 感을 表示하는 二重的 政策을 取해 왔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二重的政策은 점차 수정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最近에 와서는 積極的인 日本執權勢力에 대한 接近政策을 取하기 시작했다.

즉 日本에 대한 從來의 兩面的 姿勢間의 差가 날로 좁아져가고 있는 것이다. 最近 北韓은 日本의 執權黨 人士들을 빈번히 招請 하고 있는가 하면 北韓이 韓國統一을 방해한다는 名分으로 반대해 오던 韓日國交正常化條約으로 是認할 뿐아니라 오히려 北韓과의 國交樹立을 간청함으로써 日本이 韓國과 北韓에 대해 等距離外交를 取해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

北韓은 1次的으로 日本이 그들과의 關係를 改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엔 美國도 日本과의 競爭的 立場에서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움직임을 促進시킬 것이라는 계산과 함께 또한 日本의 北韓과의 關係改善은 相對的으로 韓日關係를 離間, 弱화시키는 結果를 招來시킬 것이라는 속셈을 갖고 있다.

또한 北韓은 日本에의 接近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蘇聯과 中共이 北韓에 대한 關心을 增大시키지 않을수 없으리라는 側面도 계산에 넣고 있는지도 모른다.

一. 對外宣傳對象地域의 擴大

7.4 聲明以前엔 北韓의 對外宣傳對象地域은 主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新生獨立國과 中立國들 그리고 中蘇, 東歐諸國들에

대해 重点的으로 力点이 주어졌다는데 7.4 以後엔 「스칸디나비아」 5 個国을 비롯한 親西方諸国에 대한 接近이 活潑해졌고 또 經濟, 文化등 非政治分野에서의 交流를 擴大시켜 나가고 있다.

美国을 除外한 西方諸国에 대해서는 西方諸国の 政治, 經濟 및 軍事面の 對美 均衡關係要素를 중시하여 그들을 美国의 反共的 世界政策을 전제하는데 있어 提攜할 可能性이 있는 소위 第二中間地帶로 보고 西方諸国과의 關係改善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關係改善 모색은 비록 國際政治面에서의 利害關係에서 뿐만아니라 西歐諸国の 技術 및 資本을 導入, 經濟建設을 促進시키려는 面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라고 하겠다.

一. 招請 및 巡訪外交의 強化

70 年代에 들어와 北韓의 招請 및 訪問外交는 현저히 強化되었는데 그 一例로 71 年엔 12 個国에 1 百 5 個의 各種 代表團을 派遣했는데 72 年에 들어와선 64 個国에 3 百 12 個의 各種 使節團을 보낸바 있고, 73 年에 들어와서도 일일히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使節團들을 내보내고 있으며 또 그와 比例해서 外國의 政府, 民間레벨의 各種 団体, 個人등을 초청하고 있다.

72 年을 北韓의 對西方圈 및 右傾中立國家들에 대한 外交關係 擴大의 해라고 한다면 73 年은 이미 設定된 關係를 토대로 修交 擴大와 協力增進을 꾀하는 해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다.

北韓은 특히 今年初부터 党, 政權 그밖의 各種 代表團을 海外에 大挙 巡訪시키고 있는데 결국 北韓外交는 그동안은 소위 人民外交

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었지만 70年代에 들어와선 政府外交로 그 性格을 轉換함으로써 對外政策과 戰略面에서 變化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時期的으로 中共의 「유엔」加入以後 中共의 國際舞台에서의 影響力 增大에 起因된 時期的인 產物이라는 側面도 있지만 한편 北韓의 對「유엔」政策에서의 變化와 그에 適應하려는 努力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北韓은 1950年代부터 長期間에 걸쳐 소위 人民外交를 展開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의 支持勢力이 恒常 劣勢에 놓여 있었으며 또 6.25의 侵略者라는 認識이 좀처럼 가셔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不利한 与件을 解消시켜야 하겠다는 欲求가 크게 作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一. 文化交流와 宣傳攻勢의 擴大強化

北韓은 文化交流와 對外宣傳을 그들의 總力外交의 중요한 外交手段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對西方, 中立諸國과의 交流에 있어서 通商關係擴大나 外交關係樹立을 目的으로 할 때도 먼저 文化交流와 宣傳活動을 先行手段으로 利用하고 있다.

즉 文化交流, 宣傳活動을 통해 相對國들로 하여금 우선 北韓을 理解케 하고 그러한 理解의 누적을 바탕으로 하여 차츰 通商 및 外交關係樹立으로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文化交流와 宣傳活動의 內容은 主로 北韓의 平和性, 主体性, 正統性을 強調하고 나아가서는 亞·阿地域人民들과의 連帶성을

宣傳하는 동시에北韓의 政治, 經濟体制의 소개 및 展望相을 과시하고 또北韓의 文化를 韓民族 固有의 것인양 脚色해서 宣傳하며 한편으로 韓國의 立場을 중상 비방하는데 注力하고 있다.

이와같은 文化交流의 形態는 對政府間 文化協定の 체결, 對民間 文化團體間의 協定締結, 그리고 文化 및 親善交流를 포방한 民間機構의 設立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對民間文化團體間의 文化交流는 주로 中立 내지 親左傾 西方國內의 親共集團들이 그 主要 對象으로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對政府文化協定締結에 이르는 段階的 橋梁的 役割을 하는 동시에 특히 中立國 침투의 幅을 넓히는데 그 意圖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參考로 68年以後의北韓의 招請 訪問外交 實態를 살펴보면 68年에 對象國 29個國에 대하여 訪問 60余回, 代表團 招請을 90余回 했으나 그것이 해마다 增加되어 前記한 바와같이 72年엔 64個國에 3百余个의 代表團을 보냈다.

그런데 이것은 部門別로 살펴보면 代表團中 文化部門 44%, 經濟部門 30%, 政治部門 20%의 順位로 되고 있으며 分野別 對象國數는 역시 文化部門 交流國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政治, 經濟의 順序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체로 訪問보다는 招請에 注力하고 있는데 亞洲 및 西歐는 文化, 經濟代表團의 招請에 또 中東, 「아프리카」 및 美洲는 文化, 政治代表團의 招請과 訪問에 역점을 두고 있다.

B. 北韓의 對外宣傳活動의 方法

以上 北韓의 對外宣傳의 樣相에 있어서의 戰略, 戰術的 變化를 概觀했는데 다음엔 그 主要 宣傳方法을 살펴보기로 한다.

一. 自由友邦 및 中立國家内の 共産黨이나 또는 左翼團體 등의 組織을 拠点으로 한 間接宣傳方式

北韓의 西方, 中立諸國의 침투 과정에 있어서는 그때 그때의 情勢 變動과 相對國의 對內外政策을 敏感하게 포착하여 伸縮性 있는 外交戰術을 펴고 있다.

예를 들면 中南美의 거점이라고 할 「큐바」나 「칠레」의 共産黨 執權國家를 中心으로 「라틴·아메리카」의 反美 또는 反政府勢力에 대한 支援을 表明하여 右翼政權의 전복을 꾀하게끔 使喚한다든지 또는 「팔레스타인」解放戰線組織을 聲援함으로써 親美 「이스라엘」의 孤立化를 助長하려고 한다든지 심지어는 美國內의 左翼團體나 反戰團體를 통한 宣傳등을 벌이고 있다.

또 昨年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保守黨政權으로부터 勞動黨政權으로의 政權交替에 대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自主的 對外的 政策遂行을 表明한 勞動黨 政權의 立場에 好意的인 反應을 보이기도 했다.

前記 兩國은 비록 政權交替는 있었지만 本質적으로 親西方과 對美協調를 계속 그 基調로 할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北韓의 勞動新聞에서는 『親美反共執權黨을 불리친 勞動黨首 「휘트람」首相의 말』이라는 식으로 報道함으로써 勞動黨 政權에게 秋波를 던지

고 있다.

一. 駐在國의 左傾組織이나 또는 利用價值가 있다고 생각되는 政治人들에게 政治工作金등을 提供함으로써 親北韓人士를 포섭하고 또 團體를 組織하려고 한다.

71年 12月現在 海外 北韓親善團體는 50個國에 116個이었던 것이 72年 6月엔 52個國에 124個 團體로 增加했고 金日成研究小組는 71年 12月엔 43個國에 172個가 있던 것이 72年 6月엔 46個國에 186個小組로 늘어났다.

一. 宣傳物의 大量物量配布

北韓은 그 發展相과 平和 이미지 扶植에 注力하는 海外宣傳戰術을 採択하고 있는데 그 方法에 있어선 反復宣傳과 長期計劃下의 積極적 活動 및 該當國家에서의 宣傳物件 擴大에 注力하는 方法을 쓰고 있다.

그리고 東京 「뉴델리」, 「프라하」, 「알제리아」, 「큐바」등지에 地域的 宣傳資料支援센터를 運營하고 있어 그곳에서 第三國을 통해 郵便送付를 한다든지 또는 刊行物 發行地를 韓國으로 偽裝한다든지 또는 韓國의 刊行物의 內容을 變造한다든지 갖가지 手法을 쓰고 있다.

그리고 刊行物의 種類는 畫報, 冊子, 팜프렛, 小說冊, 포켓用小冊子, 편지, 新聞등의 形式으로 그 對象國의 數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實情이다.

몇가지 例를 들면 「크메르」에 보낸 「LACOREE」(仙語版)

라는 畫報는 北韓의 社会, 經濟建設相의 誇大宣傳과 韓國新聞記事, 사진 등을 利用한 逆宣傳을 한것으로 配布對象은 政府機關, 學校, 文化團體, 新聞社, 圖書館 등이다.

越南엔 韓國語로 쓰인 「청훈의 노래」 「강물은 흐르고」 「抗日鬪爭記」 「失業人의 福音書」 「歸鄉」 「來日의 設計圖」 「洛東江畔」 「羅針盤」 등의 長篇小說, 小冊子들을 駐越大使館이나 僑胞들에게 發送했다.

西獨에서는 「新生活」 「강물은 말이 없고」 「三.一文學」 「雜鄉」 「東海新聞」 「맑스主義의 세 가지 源泉과 根源」 「回想記」 「新生活」 「등대」 등 우리말로 된 冊子 畫報, 新聞등을 주로 僑胞, 留學生들에게 配布하고 美國에서도 「生日날」, 「國家와 革命」 「自立經濟論」 「東海」 그리고 「各種 小說, 隨筆集, 單行本」 등을 公館職員, 留學生, 僑胞, 圖書館, 美國務省 등에 보내고 있다.

다음에 現地刊行物의 發刊을 擴大시키고 있는데 특히 各地에 金日成研究小組라는 것을 만들어 北韓의 資金支援과 人員派遣을 통해 論文, 選集 등을 내게 하고 있다.

71년에 現地에서 소위 金日成勞作을 發刊한 것을 보면 日本(六) 「파키스탄」(五) 統一아랍共和國(五) 「레바논」(二) 「모리타니아」(一) 「이탈리아」(六) 「스웨덴」(三) 英國(一) 美國(三) 「칠레」(三) 「콜롬비아」(二) 「큐바」(二) 「우루과아」(三) 「페루」(三) 中共(一) 「버마」(八) 印度(十) 「시리아」(一) 「브라자빌·콩고」(一) 「나이지리아」(一) 「프랑스」(一) 西獨(一) 「덴마크」(三)로 되어 있다.

그리고 北韓이 各種 宣傳用으로 사용하는 現地語는 「아랍」語 5種, 「스페인」語, 獨逸語, 英語, 日語, 「프랑스」語, 中東語, 「버마」語, 露語, 「힌두」語, 西部「벵갈」語, 「우루두」語(파키스탄) 등 16種으로 알려져 있다.

一. 現地 매스컴의 活用擴大

처음엔 現地の 有力紙에 金日成宣傳을 中心으로 하는 內容의 新聞廣告特輯을 내게 했는데 그 例로 日本의 「재팬·타임스」(69.10.22), 美國의 「뉴욕·타임스」(69.10.27), 英國의 「더·타임스」(69.11.3), 瑞典의 「타켄스리헤더」(69.11.12), 西獨의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너」(69.11.26) 등지에 金日成 伝記에 대한 廣告를 냈었는데 그와같은 方法이 經費에 비해 效果가 오히려 적다고 판단했음인지 最近엔 寄稿家나 現地新聞社 記者등으로 하여금 北韓을 宣傳하는 記事 特輯을 싣도록 하는 方向으로 轉換하고 있는것 같다.

그리고 內容도 金日成偶像化宣傳보다도 平和宣傳, 北韓의 發展相, 6.25 北侵主張등을 重点적으로 取扱하는 傾向에 있다.

參考로 70年과 71年度에 있어서 北韓이 現地新聞, 放送, 雜誌등 매스컴을 利用한 回數를 보면 70年度가 總618回인데 비해 71年度엔 3,220회로 1年동안에 5.2배나 늘어났다.

同期中の 刊行物配布 部數는 70年度가 42万6千9百部이던 것이 71年度엔 98万5千2百部로 2.3倍以上 增加되었다. 그리고 地域別宣傳綜合比率을 보면 「아시아」(49%), 中東(32%), 아프리카

카(9%), 西歐(5%), 美洲(5%)의 順序로 나오고 있어 現地 매스콤利用, 集會, 刊行物配布등 宣傳 綜合比率에서 「아시아」가 首位를 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現地 言論人과의 接觸範圍를 擴大시키고 있는 傾向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엔 주로 그 對象이 三流紙 左翼系에 局限되었던 것이 차츰 一般紙, 有力紙로 가고 들어가고 있으며 또 駐在國의 言論人들을 招請해 가는 경우가 빈번해져가고 있다.

72年中에 外國言論人들을 招請한 케이스를 보면 「소말리아」放送局 論評員(3.14), 日本放送協會報道局長(4.7), 日本朝日新聞論說主幹一行(4.11), 日本共同通信社論說委員(4.11), 美國「뉴욕·타임스」의 「솔즈베리」 및 「존·엠·리」(5.12), 美國「워싱턴·포스트」東北亞支局長 「해리슨」(5.23), 「캐나다」의 「토론토·스타」紙記者(6.6), 「칠레」의 政府機關紙 主筆(6.16), 「알제리아」記者代表團(8.15), 日本의 朝鮮雜誌編輯長(9.19), 「에집트」通信社記者團(10.5), 「페루」記者聯盟代表團(10.13), 「예멘」政府公報代表團(10.14), 「싱가폴」言論人代表團(10.15), 「루마니아」共産黨週刊紙 記者代表團(10.17) 등이 있는데 그밖에 各種外國使節團에 또한 言論人들이 同行하는 경우가 많다.

外國言論人 招請은 近年에 이르러서는 美國이나 日本등의 西方側 諸國을 그 對象國으로 하여 自由陣營의 北韓에 대한 이미지改善을 꾀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招請은 자연 相對國으로부터의 交換招請을 받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72年中에 北韓서 言論人団体 名義로 外國을 訪問한 것을 보면 北韓記者代表團의 蘇聯訪問(3.19), 「버마」訪問(7.26), 記者同盟代表團의 「불가리아」訪問(8.22), 記者代表團의 「에집트」訪問(9.19), 勞動新聞社代表團의 「체코」訪問(9.26) 등을 들수 있고 특히 지난 5月10日 北韓記者同盟所屬 北韓記者 8名이 67年以前 처음으로 日本新聞編集人 및 發行人協會의 招請을 받고 日本을 訪問하게끔 되었다.

一. 北韓文化館 및 移動宣傳組의 活動

北韓은 印度, 「스웨덴」, 「놀웨이」, 「덴마크」등지에 이미 文化館을 設置한바 있는데 昨年 12月10日 北韓은 「덴마크」, 「놀웨이」, 「핀란드」, 「스웨덴」등 各國에 이미 結成된 北韓과의 親善協會를 統合 調整하는 聯合會를 「코펜하겐」에 創設하게 되었다. 이는 北韓이 海外 54個國에 散在한 154個의 親北韓團體를 効率的으로 統制, 運用하기 위해 地域別로 統合하고 있는 作業의 일환으로 71年6月の 「칠레」에서 열린 中。南美 親善協會總會에 이은 두번째의 것이다.

印度에서는 北韓。印度親善協會의 支部를 約 百個支部로 擴大시키기 위한 침투공작을 展開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移動宣傳車輛까지 動員하여 韓國에 대한 逆宣傳과 金日成宣傳에 狂奔하고 있는 實情이다.

一. 文化 및 스포츠交流를 통한 宣傳

北韓은 56年 4月3日 勞動黨 및 政府의 外廓團體로 對外

文化連絡協會를 創設하였다. 55年4月の「반중」會議를 계기로 對共產圈一辺倒外交를 止揚하고 中立国 또는 新生独立国家들과 유대 관계를 맺는 多辺外交로 轉換했는데 56年2月 蘇聯第二十次黨大會에서 平和共存路線이 採択되자 더욱 그에 자극되어 北韓은 적극적인 多辺外交의 方向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政策轉換에 따라 正式政府間의 接觸에 앞서 民間外交 또는 親善團體들의 交流, 文化交流등을 主任務로 하는 機關으로서 對外文化連絡協會라는 것이 組織되었는데 이는 主로 國交關係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力點을 두고있는것 같다.

北韓이 文化交流分野에서 특히 注目を 끌게 하는 活動으로 「平壤萬壽臺藝術團」의 巡廻公演을 들수 있을 것 같다.

김경환을 團長으로 하는 150余名の 무용團이 「프랑스」(72.2.17~3.5), 「스위스」(3.7~3.10) 등지를 돌며 政治的 宣伝色彩가 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公演했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스」 北韓親善協會가 수선한 것으로 西歐地域에 文化的 침투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宣伝攻勢였다.

그리고 이 藝術團은 72年10月에 장철(文化部長)을 團長으로 하여 「에집트」와 「파키스탄」을 巡訪했고 73年7月부터 9月까지 사이에 日本을 訪問할 予定인데 이에 앞서 「런던」, 「이탈리아」, 「스웨덴」등지에서의 公演을 마친바 있다.

다음에 「스포츠」面에서 보면 北韓의 體育의 基本政策은 ①人間改造政策, ②獨裁의 道具化政策, ③外交의 道具化政策이라고 하겠는데 특히 體育을 外交의 主要道具로 삼아 各國과의 相互親善 및 紐帶

強化 그리고 國威宣揚을 위한 手段으로 最大限度로 利用하려고 하고 있다.

이 分野에서는 지난 1月5日 平壤高等 工業學校 축구대표단 一行 25名이 정광순(北韓올림픽委副委員長, 教育部副部長, 對外文化連絡協會副委員長兼任)을 團長으로 日本에 가서 約 1個月間 滯留하면서 5차례의 全勝競技를 가진바 있었는데 이 期間中에 정광순은 日本新聞과의 인터뷰를 중해 또는 「니카이도·스스무」官房長官을 訪問하는 자리를 빌려 스포츠에 관한 言動以外에도 日·北韓間의 經濟, 文化등의 交流擴大를 위한 提議를 하는가 하면 또 外交交渉을 벌여 政治的宣傳攻勢를 펴기도 했다.

또 日本과 北韓間의 스포츠交流의 窓口役割을 맡게 될 「日·朝스포츠交流促進聯盟」結成을 「지바」縣 「나라시노」高校 축구팀을 인솔하고 北韓을 訪問했던 日本体育會 「야마구찌·규따」理事를 통해 發足시키게끔 되었다.

한편 北韓의 卓球팀이 「발레이지아」와 「싱가폴」을 巡訪했고 日本卓球協會는 3月18日 全國 理事會를 열고 北韓卓球協會의 招請에 따라 4月中旬 北韓에 選手團 20名을 派遣키로 決定한바 있었다.

그밖에 昨年 9月29日엔 日·朝 文化交流協會 및 日·朝勞働者 交流連帶連絡會의 代表委員 「이와이·아카리」와 北韓의 김광섭이 平壤에서 日·北韓間民間文化交流協定에 調印함으로써 雙方은 文化, 藝術, 教育, 保健, 體育, 新聞, 通信, 放送 分野에 있어 広範한 交流를 갖기로 合意했다.

그리고 北韓의 映画代表團이 昨年 10 월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등 「스칸디나비아」諸國을 巡訪하여 「꽃파는 処女」 「한 自衛團員의 運命」 「세상에 부림없어라」 등의 政治色이 濃厚한 映画를 上演했는데 그 映画에 대한 評을 現地 매스컴을 通해 大大的으로 報道케 하여 그런대로 적지않은 效果를 본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이 映画上演後 얼마 안가서 北歐 5 個國의 北韓承認說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와같은 北韓의 大韓의 文化宣傳攻勢가 北韓承認을 위한 促進劑의 役割을 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지 모른다.

一. 北韓매스컴의 友邦國 또는 團體, 機關의 動靜에 대한 關心 表明

最近에 注目되는 點은 北韓의 新聞, 通信, 放送등의 매스컴이 특히 北韓과 修交하고 있는 나라 또는 장차 關係樹立可能性이 있는 나라 그리고 對象國의 野黨이나 左傾團體들의 動靜에 대해 重點的으로 報道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相對國의 獨立記念日은 말할것도 없고 그밖의 國慶日이나 또는 중요한 行事가 있을 때엔 祝電을 보낸다든지 激勵辭를 쓴다든지 하여 積極적인 關心을 表明하여 相對國의 歡心을 사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멘」獨立五周年을 記念, 慶祝하기 위해 写真展示會와 映画感想會를 열었다는 記事를 大大的으로 실는다든지 「탄자니

아」獨立 11 周年 記念行事를 한다든지 하는 式으로 秋波宣傳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報道는 특히 亞·阿地域의 新生獨立國들에게 적지 않은 效果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된다.

以上 北韓의 主要宣傳方式을 分析해 보았는데 그 두드러지는 特色은 招請, 訪問外交가 급작히 增加해가고 있다는 點과 從前 이 主要對象地域이었던 共產圈을 비롯한 亞洲, 中東, 「아프리카」 위주로부터 점차 西歐와 美洲에 方向을 돌려 積極적인 宣傳攻勢를 통해 接近을 試圖하고 있다는 點이라고 볼 수 있겠다.

北韓은 共產國家中에서도 극도로 廢刷的인 곳으로 알려져 왔으나 最近의 國際情勢의 多樣化現象속에서 그리고 南北對話라는 새로운 狀況을 十二分 利用하여 西方諸國의 好奇心과 關心을 사기 위한 手段으로서 과감한 交流政策을 展開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留意해야 할 일은 北韓은 갖가지 文化, 스포츠, 言論使節團 등을 派遣 巡訪시킴에 있어 그 構成人員中엔 반드시 政治的幕後實力者들을 同行시켜 對象國에서 政治, 經濟面에 관한 홍정을 進行시킨다는 사실이다.

第二章 北韓의 對日 宣傳政策

1. 對日 宣傳의 基本方向과 目標

北韓의 對日 宣傳政策의 基調는 그들의 外交政策과 不可分의 關係가 있으며 어떻게 보면 外交政策의 延長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北韓과 日本사이에 外交關係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北韓의 對日 宣傳政策은 그것이 곧 그들의 外交政策이라고 말할 수 있다.

外交루트라는 國家 레벨의 公式차널이 이룩되어 있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 北韓은 民間 레벨의 이른바 「人民外交」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人民外交」의 本質은 自國에 대한 PR을 중심으로 友好분위기조성이 一次目標로, 광범한 支持勢力을 조성해 나간다는데 力點이 있다.

따라서 平壤政權의 「人民外交」는 政治的 프로파간다에 의한 日本內의 광범한 支持세력 확보를 위한 多樣한 活動으로서 게릴라의 特性을 띠고 있다.

北韓의 對日 「人民外交」는 在日僑胞 60 万이라는 潛在的 呼應내지는 支持세력을 背景으로 이들가운데 잘 組織된 朝鮮人總聯合會(朝總聯)의 戰鬪的 活動과 忠誠心으로 日本國民 뿐만 아니라 西方側 進步的 人士들을 상대로 폭넓고 뿌리 깊게 作用하고 있어 때로는 大使館을 두고 있는 韓國의 立場에서 苦戰을 하게 되는 심각한 局面을 빚어내는 경우도 있다.

朝總聯本部는 사실상 「準外交代表部」格의 성격을 띠고 있다.

金日成은 朝總聯의 活動을 73年 1月1日 新年辭를 통해 다음과 같이 評價했다.

『……今年에는 總聯組織과 在日朝鮮同胞가 主体思想의 革命的 가치를 높여 民主主義的 民族權利를 지키고 祖国의 自主的 統一을 促進하기 위해 日本人民을 비롯하여 世界各国人民과의 國際的連帶를 強化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強力히 鬪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在日朝鮮同胞는 反動分子들의 그 어떤 破壞策動도 철저히 분쇄하여 總聯組織을 한층 더 견고히 하여 總聯을 中心으로 굳게 團結하여 서로 돕고 이끌어주어 鬪爭을 벌여 나가야 하겠읍니다……』⁽¹⁾

비록 國交는 없으나 北韓은 日本과 政治, 經濟, 社會, 文化面에서 사실상 활발한 接觸을 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國際的 緊張 緩和의 물결을 타고 雙方의 接近은 더욱 密接해 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들의 관계는 美·中共間의 和解의 계기가 된 「닉슨」美 大統領의 北京訪問을 前後해서 부각된 列強의 平和共存摸索과 때를 같이 하여 本格化하고 있는 現狀固定化라는 새 現象에 크게 자극을 받아 더욱 긴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나타난 北韓의 外交的 意志, 對日外交의 基本方向을 보면 ①美中共和解와 日中共의 關係개선, 그리고 日·소의 協力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列強에 의한 秩序改編과 平和共存무드에 便乘, 國際的 不利益을 모면하기 위해 日本과는 최소한 敵對관계는 청산해야 한다. ②日本과의 接近은 상대적으로 韓國의 地位를 떨어뜨리고 韓國民에게 心理的 痛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③韓

日關係와 美日關係로 얽혀져 있는 韓美日의 三角結束을 弱화하
로서 北韓의 安全과 나가서는 赤化統一의 長期的 布石을 굳힌다.
④日本政府로 하여금 「두개의 韓國」을 承認케 하므로서 당분간
「等距離外交」를 수행케 하여 결국은 日本과의 國交正常化를 이
룩한다. ⑤新經濟發展 6 個年計劃을 뒷받침할 日本의 技術 및 物
資의 支援을 얻고 日本으로 부터 값싼 消費材를 들여오도록 한
다. ⑥日本의 地位를 이용하여 國際交流와 進出을 促進하고 國
際舞台에서의 發言權을 強化한다는 점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 日本과의 經濟交流를 擴大한다는 문제는 대
우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다. 7.4 南北共同聲明과
赤十字會談으로 극히 制限된 상태나마 南北間의 往來가 트이면서
北韓은 그들의 生活水準向上에 힘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以上과 같은 外交的 意志를 實現하기 위해 北韓은 民間베이스
의 「人民外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貿易擴大와 文化交
流를 폭넓게 전개하므로서 北韓의 이른바 「社會主義制度의 優越
性」을 선전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또한 人士交流를 통한
「訪問外交」가 71年 이후에 활기를 띄게 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이와함께 北韓은 朝總聯의 組織을 擴大強化하는데 한층 힘을
쓰고 있고 이들을 통해 日本內에 親北韓勢力을 심어 그 세력을
조종 이용하여 日本政府에 對北韓政策을 修正 전환하도록 꾸준히
壓力을 넣고 있다.

이와같은 그들의 노력은 日本内 左翼세력의 호응을 얻어 이른바 「日朝協會」 「日朝貿易協會」 등 親北韓團體의 結成을 보게 했고 71年 10月에는 日本社会党을 비롯한 公明党, 共産党은 물론 自民党을 포함한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을 結成, 自民党的 「구노」 (久野忠治) 議員이 인솔하는 11名의 議員團이 北韓을 親善訪問하여 이른바 「日本国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間의 貿易促進에 관한 合意文書」에 署名까지 하게 되었다.

일종의 党書貿易協定格인 이 合意文書에 의한 雙方的 經濟交流는 相互貿易量을 擴大하기 위해 平壤과 東京에 각각 貿易代表部를 設置할 것과 交代로 商品展示會를 열도록 약속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있는 「고또」 (後藤基夫) 「아사히」新聞編輯局長의 平壤방문과 그의 金日成과의 會見은 매우 重要的 意味를 갖는다. 金日成은 「고또」와의 會見에서 『国交수립 이전에라도 貿易, 自由往来, 文化交流, 記者交換의 실현을 환영한다』⁽²⁾ 고 말하고 日本과의 긴밀한 接觸을 희망했다.

이처럼 활발해진 北韓과 日本과의 接觸은 雙方的 人士往来를 促進, 71年 한해동안에 日本入国이 許可된 北韓人員만도 31名에 이르렀고 北韓訪問을 한 日本人은 285名이나 되었다. 日本을 방문한 北韓人員은 대개가 商用과 스포츠관계人士였지만 平壤을 방문한 日本人들은 言論人 18名, 文化人 17名, 国会議員과 그 수행원 9名등 与論主導型人士들이었다.

以上 既述한 北韓의 对日接近活動의 背景을 좀더 구체적으로 摘示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北韓은 「新經濟發展6個年計劃」(71~76年)의 추진과 「두개의 朝鮮」 既成事實化 등을 목표로 작년부터 日本과의 關係正常化의 前提條件이 되어온 韓日條約의 廢棄를 일단 접어둔채 日本과의 交流擴大에 과감히 注力해오면서 今年에 들어서도 日本에 대해 「南北等距離外交」를 推進하도록 계속 유연한 姿勢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例로 北韓의 平壤高等輕工業學校 축구팀의 團長으로 73年 1月 5日 日本을 방문한 鄭光淳教育部長(對外文化連絡協會副委員長·올림픽委員會副委員長)은 「東京新聞」記者와의 會見을 통해 韓日條約과 「朝日正常化」와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韓日條約을 前提로한 日本과의 國交正常化는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일 같다.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同條約의 內容가운데서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목이 第三條의 이른바 朝鮮半島의 唯一合法政府가 大韓民國이라는 部分이다.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條項이다. 그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같은 決定을 하고 있다. 따라서 韓日條約을 그대로 두고 日本과 國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가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일이다. 우리는 同條約의 取消와 無効化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同條約을 認定한 일은 한번도 없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朝鮮半島, 地球上에 엄연히 存在하고 있다. 그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되지 못한 생각이다.

우리는 日本과의 正常化問題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外交를 전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日本과의 國交正常化가 實現된다면 韓日條約은 事實上 無効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日本政府

가 今後 어떤 態度를 취할 것인가를 여러모로 檢討, 研究하고 있다. 그 한 계기로서 日本政府가 南朝鮮一辺倒政策과 우리나라에 대한 敵視, 非友好政策을 中止하고 均等, 互惠平等政策을 취할 것을 바라고 있다.』⁽³⁾

鄭光淳의 이러한 發言은 昨年 1月 金日成首相(당시)이 『朝日兩國國交正常化의 障害는 南의 朴政權을 唯一合法政府라고 認定한 韓日條約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內政干涉이다. 그러나 「朝日關係正常化」를 위해서는 반드시 韓日條約을 取消해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國交가 正常化하면 韓日條約은 자연 消滅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⁴⁾ <讀売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고 한 얘기라던가 同年 9月 朴成哲副首相의 『現實적으로 우리나라와 關係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다. 日本이 一方的으로 南朝鮮과 關係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統一을 放害하고 있긴 하나 南北雙方과 平等한 關係를 갖게 되면 統一에 放害는 되지 않을 것이다. 南北이 統一되었을 때 統一朝鮮과 外交關係를 수립하면 그만인 것이다. 오컨데 日本이 統一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두가지 길 밖에는 없다. 하나는 南에의 援助를 하지 말것. 또 하나는 南에 援助하려거든 우리와도 平同한 關係를 맺는 일 뿐이다.』<日本人 記者와의 會見서>고 한 發言의 延長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北韓이 從前까지 고집한 이른바 「先韓日條約廢棄 後朝日國交」論으로 부터 「先朝日國交 後韓日條約廢棄」論, 다시 말해서 「韓日條約不問 南北等距離外交」論으로 對日政策을 크게 調整, 柔軟化한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北韓의 對日外交柔軟化背景에는 北韓에서 오늘날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 共產主義建設에 관한 理論과 經驗을 集大成한 馬스-레닌主義教科書」로 불려지고 있는 昨年 12月25日의 金日成演說 「우리나라 社會主義制度를 한층 強化하자」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나라와 親善關係를 맺기를 희망하고 朝鮮半島의 南과 北에 대해서 侵略的 性格이 없는 均等한 政策을 수행하는 資本主義諸國家와도 平和共存의 五原則에 기초하여 國家的 및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關係를 맺는데 勞力할 것입니다.』⁽⁵⁾ 라고 韓國承認 國家와도 韓國과의 關係를 不問에 부치고 關係正常化를 맺을 의향을 뚜렷이 한바 있다.

이와같은 北韓側 態度변화와 때를 같이하여 日本政府도 對北韓政策을 점차로 修正하는 方向으로 임하고 있다.

日本外務省發行的 月刊公報誌 「世界の 움직임」은 72年末 臨時增刊号 「南北共同聲明後의 朝鮮半島情勢」에서 처음으로 從來의 北韓과의 關係가 「非正常的인 狀態」였다고 反省하면서 비록 「韓國이 願치 않는다 하더라도 北韓과의 接觸을 前進的 태도로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外務省의 反省論에서 日本은 『過去 日本이 朝鮮統治, 그리고 現在의 分斷상태등을 놓고 볼때 日本은 朝鮮半島 문제에 저야할 道義的 責任이 아시아 및 西유럽各國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렇다면 日本政府가 취할 態度는 과연 어떤 것일까. 日本이 취할 立場은 매우 어렵다. 日本으로서는 今後에도 韓國과 親善關係를 더욱 強化하는 동시에 韓國이 願치 않는 北韓과의 接

觸을 前進的 자세로 진행해야만 한다는 問題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처럼 어느 한쪽에게만 友好的이고 다른쪽에게는 전혀 接觸을 갖지 않는 상태는 正常이 아니다. 즉 朝鮮과 日本 兩民族의 本來 있어야 할 關係를 만들기 위해서는 朝鮮半島統一을 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日本人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朝鮮民族의 一体性を 認識, 尊重하여 『統一朝鮮像』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南北緊張緩和를 위한 協力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日本外務省 관계자는 『日本政府의 對北朝鮮政策이 質的으로 變化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量的으로는 變化했다고 볼 수 있다』⁽⁶⁾ 고 說明했다. <東京新聞>

그런데 73年 1月 21日字 日本經濟新聞은 日本外務省이 1月 10日 美國訪問길에서 돌아오면서 日本에 들린 金鍾泌總理가 日政府首腦들과 會談하면서 『韓國은 70年代後半을 고비로 北韓과의 安定된 共存관계에 돌입한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日政府가 對北韓政策을 고치는 作業에 착수중이라는 다음과 같은 記事를 실고 있다.

『(日本)外務省의 作業은 南北朝鮮이 서로 統一의 길을 남겨 놓고 安定된 共存관계에 돌입했을 경우, 北朝鮮과의 外交관계 혹은 外交관계에 가까운 通商代表部의 設置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이르는 外交的 布石과 그 준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우선은 『南北朝鮮의 對話가 南北의 勢力均衡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平衡을 흐트러 놓는 外交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文化, 스포츠, 經濟, 人的交流面에서는 종전보다 많이 北朝鮮과의 接觸을 활발히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北朝鮮政治家의 入国, 对北朝鮮輸出入銀行資金使用에 의한 무역거래도 朝鮮半島정세변화와 맞추어 時期를 검토해나갈 方針이다.』

이보다 앞서 1月12日 日本法務省은 「칼카타」에서 열린 「아시아」教職員団体協議會에 참가하는 在日朝鮮人教職員同盟의 教員 3名(李時求 朝鮮大學校 副學長등)에게 印度旅行의 出국許可와 日本에 돌아올 수 있는 再入國許可를 내주었고 平壤에서 열리는 日本實業界代表와 北朝鮮側과의 貿易商談을 위해 出국을 희망한 朝總聯系商社役員 1名에 대한 日本再入國許可를 내 주었다.

日本政府의 前進的 对北韓接觸은 73年 1月18日 日本通産省職員 2名을 74年부터 常駐員으로 北韓에 파견한다는 決定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차츰 对北韓관계에 本格的인 接觸을 擴大해 나갈 것이라는 日本政府의 信號로도 해석된다.

通産省의 이러한 決定에 대한 그들의 說明을 보면 北朝鮮의 市場調査를 위한 것이 目的으로 되어 있고 이미 74年度 同省豫算에는 「北朝鮮市場調査費」라는 명목으로 1,600万円이 計上되어 있다. 이와 같은 計劃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은 日本政府官吏의 北韓訪問은 첫 케이스가 된다.

또한 今年初에 發表된 日本貿易振興會(제트로)의 74年度事業計劃案에는 北韓에서의 見本市開催(10月~12月)가 들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今年 1月29日에는 「니카이도」(二階堂)官房長官이 日本政府 高位官吏로서는 처음으로 公式으로 北韓의 鄭光淳

北韓高等輕工業學校 축구 팀 團長 과 會談을 했다. 비록 非政治的인 문제로 두사람이 만났지만 이것은 重大한 事態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日本政府와 이러한 寬容下에서 朝總聯本部는 對日·對西方 宣傳 활동을 활발히 벌여 72年年初부터 日本報道기관인 重鎮級要員 35名 (朝日·毎日·読売·NHK 등 7個社)에게 平壤방문의 길을 열어 주었고 美国有力紙 「뉴욕·타임즈」의 「해리슨·솔즈베리」 副局長과 「존·리」 記者, 「와싱턴·포스트」의 東京주재特派員 「세릭·해리슨」 記者를 平壤에 초청, 金日成과의 會見을 주선해 주었는데 美国記者들의 入北은 動亂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다. 또한 71年 9月에는 이른바 그들의 「建國記念日」 경축행사를 東京의 一流호텔인 「오구라 호텔」에서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二千餘名の 日本人 및 東京주재 外国代表기관要人 (一部外交官포함)을 초대 기세를 올린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이었다.

訪問外交의 초청장발부 (領事業務)나 外交行事的 각종 리셉션등은 70年代 들어서 朝總聯이 가장 힘을 들이고 있는 對外事業으로 副議長 (당시) 金炳植과 國際局長 尹相哲이 이를 主導했다.

2. 宣傳組織實態

A. 概況

무릇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宣傳·煽動의 概念은 「맑스」, 「엔겔스」, 「레닌」의 理論과 「볼셰비키」 黨의 歷史를 大衆에게

교육하는 同時에 政府의 決定과 政策을 널리 알리므로서 政府의 勞力을 人民과 流通시키는 過程을 뜻하는 것으로 人民을 理論적으로 教育하고 또 최대한으로 그들을 國家目標에 動員하는 手段으로 매우 重視되고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國家의 宗主國인 소련의 宣傳 (Propaganda) 활동은 各級學校, 再教育過程을 통해 一定하게 計劃된 討論內容을 토대로 黨과 政府가 주관하는 「政治教育」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政治教育」은 工場管理者를 통해 都市 勞働者들에게도 베풀어지고 있다. 「政治教育」은 國家管理下에 있는 全機關과 媒體가 總動員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1953年현재 宣傳煽動家만도 2,475,000名에 이르고 있다. (7) 宣傳煽動家들은 黨指導部와 人民을 연계 (Link)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宣傳煽動活動의 중요한 道具가 되고 있는 媒體의 성격은 「소련 社會에서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唯一한 뉴스인 社會主義建設」을 傳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媒體의 가장 중요한 任務와 責任은 一般뉴스를 傳達하는 것이 아니고 社會主義構造와 行政의 過程인 政黨, 生産計劃등을 報道하는 것이다.

北韓의 경우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宣傳煽動은 國家目標달성을 위한 重要手段으로 되어 있고 最高政策決定기관인 最高人民會議의 결정에 따라 方向이 設定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對外宣傳은 本質적으로 人民의 組織과 動員을 위한 政治活動이며 우리가 通念上으로 쓰고 있는 弘報活動과는 다른 것이다.

北韓의 對日宣傳은 그렇기 때문에 1次的으로 在日僑胞를 상대로 그들을 北韓政治体制下에 組織하며 組織된 勢力을 動員하여 日本人과 西方側人士들을 그들의 支持勢力으로 끌어 들인다는 活動目標를 세우고 있다.

앞서도 言及했거니와 朝總聯本部는 北韓에서 送金한 莫大한 政治資金으로 組織運營되는 準外交代表部格의 活潑한 政治活動을 해오고 있다. 北韓內閣의 直接指揮를 받는 가운데 1955年 5月 25日과 26日에 東京 「아사쿠사」(淺草)公會堂에서 結成된 朝總聯은 그들의 宣言에서 『우리들은 在日 60萬 全體同胞들을 영광스러운 우리 祖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와 敬愛하는 金日成元首 주위에 더욱 굳게 結속시키며 우리 祖國의 平和的統一獨立을 達成하기 위하여 美帝의 朝鮮侵略과 李承晚賣國逆徒들을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할 것이다』고 밝히고 『우리들은 또한 祖國의 平和共存에 관한 外交政策을 충실히 준수하여 日本國民들과 國際主義的 친선 단결을 더욱 強化하므로서 朝日兩國間의 關係를 正常化하며 世界平和를 公高히 하는 사업에 寄與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⁸⁾ 고 그들의 目標를 밝혔다.

金日成은 朝總聯의 結成直後에 그들에게 보낸 「敎示」에서 朝總聯의 結成을 칭찬한 뒤 『①教育費를 보낸다 ②獎學金을 보낸다 ③朝總聯의 活動을 적극 援助한다 ④學生들이 祖國에 와서 工夫 하겠다면 그들을 받아주겠다 ⑤歸國을 희망하는 同胞는 적극 받아 주겠다』⁽⁹⁾ 고 約束했다.

平壤당국에 의해 操縱되고 있는 朝總聯은 이렇게 하여 民族教育, 国籍法鬭争 同胞의 送北, 祖国自由往来, 永住權問題, 平和統一運動과 韓日兩國을 反對하는 政治的 活動을 벌여오고 있다.

그들은 朝總聯傘下에 12個團體를 組織하여 그들로 하여금 「朝鮮新報」와 「朝鮮通信」等を 發行하게 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고 있는 各種出版物은 北韓의 「로동신문」縮刷版을 비롯해서 모두 36種에 總發行部數 268,300部에 達한다. (10)

더욱이 最近에는 莫大한 工作金으로 日本言論界에 손을 뻗치기 始作, 指導的 言論機關에서 金日成과 이른바 「主體의 나라」北韓에 대해 特輯을 내도록 工作하고 있다.

日本社会団体와 各種 言論機關代表에 대한 招請도 매우 活潑하여 71年中 69個 團體가 平壤을 방문했다. 이것은 全体 아시아地域 10個国 14代表團이 北韓招請을 받는데 비하면 실로 그 5倍에 달한 셈이다. (11)

이밖의 日本左翼勢力과 共同으로 組織된 朝總聯의 協力團體가 「日朝協會」를 비롯하여 「日朝貿易會」「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等 9個가 組織되어 親北韓活動을 하고 있다.

또 日本左翼系 出版社를 통한 「金日成伝」과 「그의 著作集」이 日本語로 번역 出刊되기도 했다. 白峯著 「金日成伝」이 1969年 3月에 「雄山閣」에 의해 첫卷이 나왔고 1969년에는 「金日成伝」의 英文版(2卷)이 「未來社」에 의해 刊行되었다. 이 英文版은 美國의 「뉴욕 타임즈」紙와 英國의 「더 타임즈」紙에 全面廣告를 내어 크게 선전되었다. 「金日成伝」日語版은 모두 15,000部가

出版되었고 新聞廣告費만도 500 万円이었다고 한다.

兩出版社의 代表는 「金日成伝」出版의 功勞로 1970年 6月 金日成의 초청으로 平壤을 다녀왔다. 「未來社」는 그後 「金日成著作集」五卷中 二卷을 出刊해냈다.

이밖의 朝總聯機關으로서 特記할만한 것은 1968年 4月에 公式認可된 朝鮮大學校가 있는데 이는 ①北韓에서 送金된 資金으로 運營되고 ②教育內容이 共產主義教育이고 ③反日教育을 實施할 뿐더러 ④그 運營이 秘密主義라는 理由로 많은 불의를 일으킨 일이 있다.

朝鮮大學校는 共產主義幹部를 養成하는 「政治學院」이라는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 朝總聯組織

朝總聯의 組織은 강력한 中央集權制에 의한 一人獨裁體制로 되어 있다. 東京의 中央本部가 地方組織을 統轄하고 있고 地方組織은 日本行政區域에 準하여 짜여져 있다. 全國을 8個地方協議會로 나누어 各都道府縣에 地方本部를 두고 그 밑에 各支部分會, 班이 속해 있다. (別表1參照)

이들의 全體人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뚜렷한 公式數字가 없기 때문에 確실한 數는 把握되고 있지 않지만 約 24 萬名으로 推定되고 있다. 中央委議長 韓德銖는 第8期 6次 中央委報告에서 幹部와 熱誠者 59,000 名에게 教養을 實施했고 3,000 個의 末端組織을 해 놓았다고 말했는데 59,000 名이란 朝總聯의 組織員이며

그들 組織의 根幹으로 評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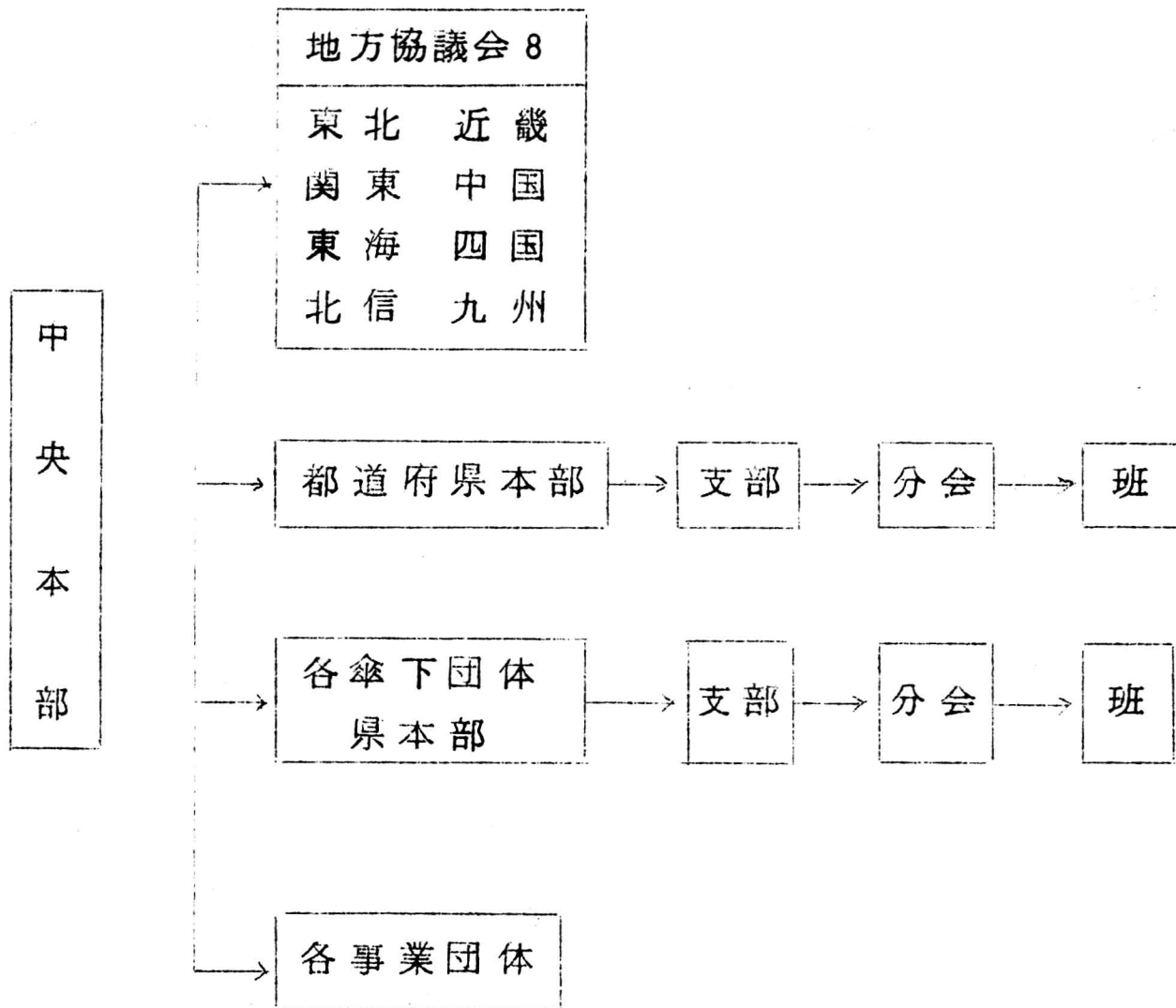
朝總聯의 各級機關組織員으로는 朝鮮青年同盟(朝青) 朝鮮民主女性同盟(女盟) 朝鮮商工人聯合會, 朝鮮人信用組合協會, 朝鮮人中央教育會, 朝鮮人教職員同盟 등 單一團體 13個에 約 30,000名이 活動하고 있어 基本組織員 5萬9千名과 合치면 89,000名에 달한다.

2次大戰直後 200萬을 넘는 在日朝鮮人들의 歸國을 促進하기 위해 同胞들이 만든 「歸國促進同盟」이 結成되고 이것이 母體가 되어 今後 「朝鮮人聯盟」으로 擴大되었으나 共產主義者들이 主導權을 掌握함에 따라 民族系의 同胞들이 脫退하여 「民團」을 따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北韓系 同胞들은 한동안 日本共產黨의 指導下에서 活動해 오다가 1955年 2月 25日 北韓 外相(當時) 南日이 日本(當時 鳩山內閣)과의 國交正常化를 희망하는 聲明을 發表하게 되자 『우리의 任務는 祖國의 統一에 이바지 하는 것이므로 日本共產黨으로 부터는 脫退한다』고 밝히면서 『日·朝兩國의 國交正常化를 爭取하는데 모든 힘을 다한다』고 주장. 同年 3月에 「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1951年 結成) 第19回中央委에서 北韓에서 파견된 韓德銖가 새 새로운 運動方向을 提示 5月에 「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은 「在日朝鮮人總聯合會」로 탈바꿈하여 今日에 이른 것이다. (12)

<別表 1 >

朝總聯組織機構表



朝總聯의 中央組織을 보면 議長團, 全体大会, 中央委員會, 中央常委 및 監事委員會로 되어 있다. 全体大会는 最高決議機關으로 每 3 年마다 5 월에 開催된다. (第 5 次大会까지는 每年 1 回 열리던 것을 3 年마다 열기로 約定) 全体大会는 中央委員, 監査委員 및 代議員으로 구성되며 代議員配定比率은 中央常委가 결정하는데 大会때마다 그 數는 달랐다. (別表 2 參照)

全体大会의 任務는 ① 期間中 基本政策 및 活動方針의 樹立
② 中央委와 監査委의 事業報告에 따른 審議決定 ③ 豫算과 決算
審議 ④ 綱領과 規定의 審議採択 ⑤ 議長團, 中央委員, 監査委員의
選出등이다.

中央委員會는 다음 全体大会까지의 最高決議機關으로 4個月마다
開催되며 議長團, 中央委員, 監査委員 및 中央常委員으로 구성된다.

中央常委는 議長團이 每月 2回 소집하며 実務 8個部署의 長과
非常設機關인 民族教育對策委員會, 帰國對策委員會 및 祖国往來要請委
員會代表가 참가한다.

이밖의 監査委員會는 全体大会가 選出한 委員 5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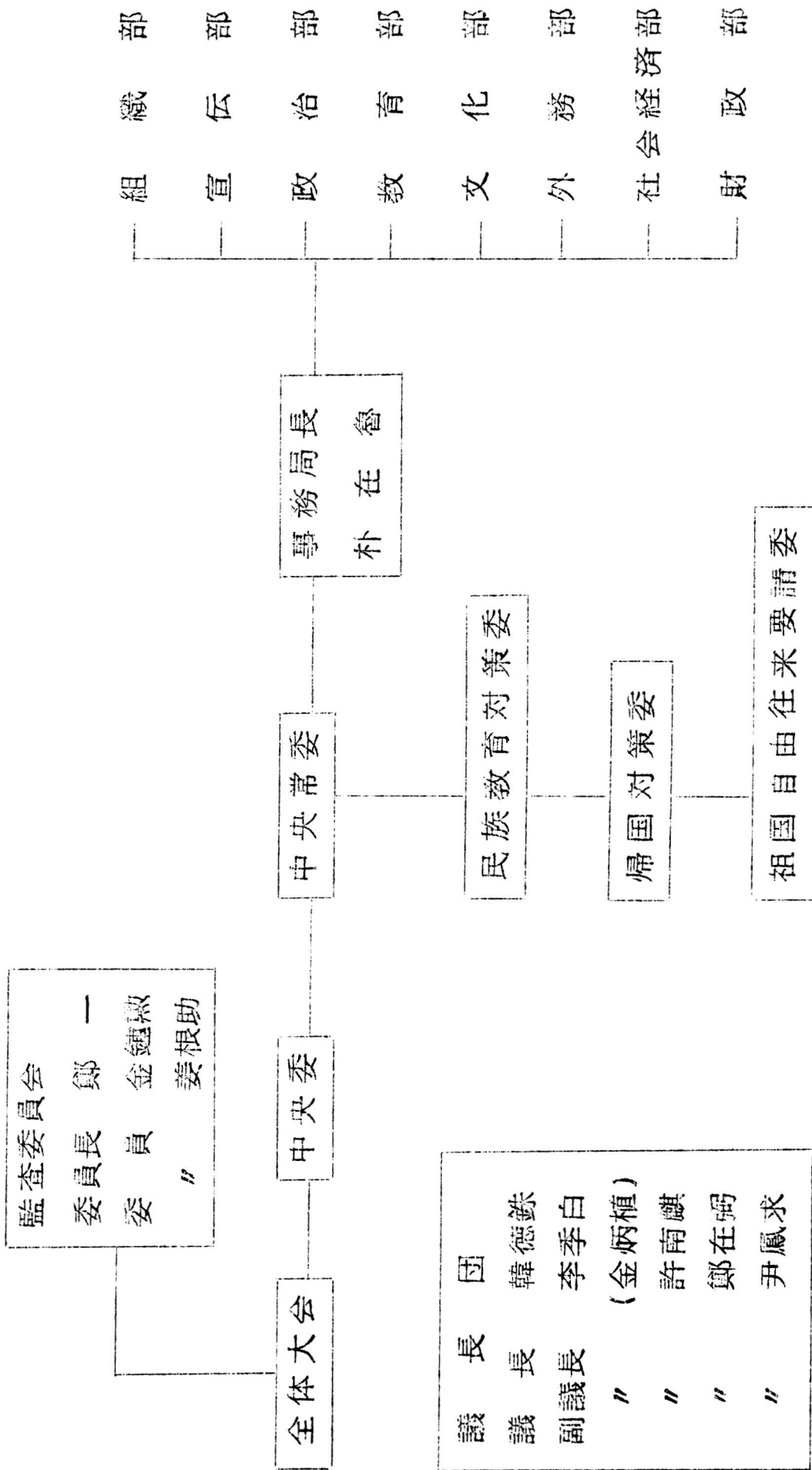
한편 이들의 地方組織은 8個地方協議會로 나뉘어져 日本行政区域
처럼 各地方 本部는 都 道 府 県所在地에 設置하고 支部는 會員
數에 따라 그 밑에 둔다. 支部 밑에는 分會와 班등이 두어진다.

地方協議會는 各県本部가 中央의 直接指揮를 받고 있기 때문에
事實上 그 機能을 發揮하지 못해 有名無實하다. 現在 韓德銖회하
에서 專門家會議나 熱誠者會議같은 小規模集會가 자주 열리고 있어
中間的 機構는 뚜렷한 活動을 하고 있지 못하다.

地方組織數는 8個地方協議會, 都 道 府 県本部 48, 支部 419,
分會 2,700, 班 245로 나타나 있다.

<別表2>

中 央 組 織



그런데 朝總聯組織上 重要な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傘下單一團體는 事業別로 組織된 職業團體였으나 第5次全體大會이후 採択된 中央集權制로 朝總聯中央本部의 直接指揮를 받는 강력한 前衛機關이 되었다. 이 傘下單一團體들은 그들 組織속에 각기 다른 事業體들을 두고 있는데 出版 文化 芸術 經濟活動 教育事業을 벌이고 있다. 傘下單一團體와 그들의 事業體는 다음과 같다.

◎ 傘下單一團體 (1970年 11月現在) (13)

- 在日朝鮮青年同盟 (朝青)
- 在日朝鮮民主女性同盟 (女盟)
- 在日朝鮮人中央教育會 (教育會)
- 在日朝鮮人教職員同盟 (教職同)
- 在日朝鮮人商工聯合會 (朝商聯)
- 在日朝鮮人信用組合協會 (朝信協)
- 在日朝鮮留學生同盟 (留學同)
- 在日朝鮮言論出版人協會
- 在日朝鮮人科學者協會 (科協)
- 在日朝鮮文學藝術家同盟 (文芸同)
- 在日朝鮮人體育聯合會 (體聯)
- 在日朝鮮人佛教徒聯盟
- 在日朝鮮人統一同志會

◎ 傘下事業体

朝鮮新報社

朝鮮通信社

朝鮮問題研究所

九月書房

学友書房

朝鮮画報社

朝鮮青年社

時代社

朝鮮大学校

朝鮮総聯中央学院

” 關東学院

” 關西学院

” 九州学院

關東經濟学院

在日本朝鮮人通信教育協會

朝鮮中央芸術団

朝鮮演劇団

東海商社株式会社

◎ 日本人과 共同으로 組織된 団体

日朝協會

日朝往来自由實現連絡會議

在日朝鮮人の 人權을 지키는 會

在日朝鮮人帰国協力會

日朝學術交流促進會

日本朝鮮研究所

日朝貿易會

在日 60万僑胞들에게는 물론 日本人들을 相對로 활발한 宣傳工
作을 펴고 있는 朝總聯과 이들의 前衛機關인 傘下團體들의 組織과
現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在日朝鮮青年同盟

所在地： 東京都 千代田区 富士見町 2-14-15

朝鮮會館內

代表者： 姜玉周（朝總聯中央委員）

組織： 地方協議會 7, 都道府縣本部 30 分會 및 班 300,

盟員 12,000 名

刊行物： 「朝鮮青年」週刊, B 3 版 한글 5,000 部 1956

年 2 月 1 日 創刊

「新しい 世代」 月刊 A 5 版 日本語 3,000 部

1960 年 1 月 10 日 創刊

1955年 8月に 만들어진 「朝靑」은 大衆集會나 大規模政治活動 보다는 朝總聯의 末端組織細胞인 班에 浸透, 理論教育和 啓蒙에 注力하고 있다. 週期的으로 「班熱誠者大會」를 열어 組織強化에 앞장서고 있다. 朝總聯의 靑年運動은 年令別로 볼 때 圧倒的인 數를 占하고 있는 僑胞社會靑年層에 파고 드는 積極的인 面이 두드러질뿐 아니라 日本의 젊은 知識層과 進步的 勢力의 호응을 노리는 運動으로 評價되고 있다.

◎ 在日朝鮮民主女性同盟

所在地： 東京都 千代田区 富士見町 2-14-15

朝鮮會館內

代表者： 朴靜賢

組織： 地方協議會 7, 都道府縣本部 20, 支部 80,

盟員 10,000名

刊行物： 「朝鮮女性」半月刊 B3版, 한글 5,000部

1958年 7月30日創刊

女盟은 朝總聯組織과 運動의 基盤이 되어 있다. 資金募金, 教育事業, 各種大衆集會등을 꾸준히 主導해오고 있다. 女盟創設者 金恩順이 韓德銖에 맞서 對立했다가 「送北」되었는데 女盟의 影響力은 朝總聯內에서 크게 評價되고 있다.

◎ 在日朝鮮人中央教育會

所在地： 朝鮮會館內

代表者： 洪鳳壽

組 織： 地方協議會 6， 都道府縣教育會 34，

構成員 23,000 名

刊行物： 「民族教育」 半月刊 B 4 版 한글， 月刊日本語版

2,000 部 1956 年 7 月 26 日 創刊

北韓에서 送金하는 教育援助資金과 獎學金의 管理 割當을 하면서 朝總聯系의 各種學校의 運營， 教育養成， 學術研究活動獎勵等 教育과 啓蒙事業을 벌이고 있다.

北韓의 教育資金은 北韓赤十字社를 통해 英國경유로 朝總聯에게 払入되고 있다.

教育援助金과 獎學金이 北韓에서 送金된 1957 年 以後 70 年까지 모두 98 億圓이나 되었다.

◎ 在日朝鮮人教職員同盟

所在地： 朝鮮會館內

代表者： 李寅宰

組 織： 地方協議會 6， 都道府縣委員會 34， 分會 250，

構成員 1,500 名

刊行物： 中央教育會의 「民族教育」을 共同出版하고 있음.

日本教職員組合에 個別的으로 加入했던 僑胞教職員들이 1955 年에 日教組에서 나와 만든 團體로 지금도 日教組大會에는 代表를 參席시켜 그들과 유대를 같이 하고 있다. 盟員들은 教育研究活動명목

으로 對外活動을 하면서 朝總聯을 宣傳하는데 더욱 熱을 올리고 있다.

◎ 在日朝鮮人商工聯合會

所在地： 東京都 台東區 上野 7-2-6

朝鮮商工會館內

代表者： 梁 宗 高

組 織： 地方協議會 5， 都道府縣商工會 36， 地域商工會 120，
構成員 13,000 名

刊行物： 「朝鮮商工新聞」週刊 B3版 한글. (三種郵便認
可) 3,000部, 1952年9月30日創刊

僑胞經濟人들은 1959년까지 思想的 差異를 초월하여 비교적 조
용하게 「朝鮮人商工聯合會」組織下에서 活動했다. 그러다가 中央本
部가 朝總聯에 加入하면서 부터 朝總聯의 指揮를 받아 政治運動에
도 가담, 「民族權利擁護鬭爭」 「民族差別 및 탄압反對」 등을 내걸고
鬭爭에 앞장서고 있다.

朝總聯은 1963년부터 商工人들의 共產主義敎育과 北韓의 「公民
意識」을 고취시키기 위해 「關東經濟學院」과 「關西經濟學院」을
만들어 思想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 在日朝鮮人信用組合協會

所在地： 東京都 澁谷區 千駄谷 5-29-10

代表者： 金教義

組 織： 組合數 32， 店舖 109， 構成員 49,000 名

刊行物： 「朝銀」 B 5 版 한글 1,000 部

1961 年 5 月 朝總聯에 加入， 北韓에서 보내는 教育資金등을 預
置하여 金融面에서 信用을 얻어 發展하기에 이르렀다.

◎ 在日朝鮮留學生同盟

所在地： 東京都 豊島区 西巢鴨 3-765

代表者： 金 日 植

組 織： 地方本部 7， 構成員 650 名

刊行物： 「朝鮮留學生新聞」 月刊 B 3 版

日本語 2,000 部

朝鮮學生同盟(在日)이던 것이 1949 年 韓國系學生들이 大量脫退
「在日韓國學生同盟」을 따로 組織함에 따라 左翼學生集團으로 남아
있다가 1955 年 6 月에 朝總聯에 흡수되어 「在日本朝鮮留學生同盟」
으로 改編되었다.

日本學校에 在學中인 僑胞學生들 間에는 「留學同」과 「韓學同」
으로 갈라져 對立 抗拒하면서 學生運動을 벌이고 있다.

◎ 在日本朝鮮言論出版人協會

所在地： 朝鮮會館內

代表者： 朝總聯中央委員(許南麒가 실질적 責任者)

比較的 營성한 組織이면서도 對外的으로는 그 存在를 擴大하여

내 세우고 있는 이 團體는 會員事業체의 36種의 出版物을 管理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朝總聯各級機關의 刊行物은 各機關의 責任下에서 發行하고 있으므로 協會는 사실상 無關한 狀態이다. 協會會員들이 내고 있는 出版物現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北 韓 弘 報 物 現 況

刊 行 物	發 行 社	實 質 的 發 行 者	形 態	部 數	用 語
조 선 신 문	朝鮮新報社		日刊新聞	42,000	한 글
조선신문縮刷版	"		季 刊	10,000	"
로동신문縮刷版	"		季 刊	10,000	"
조 선 주 보			週刊新聞	30,000	"
朝 鮮 時 報			週刊新聞	60,000	日 語
朝 鮮 通 信	朝鮮通信社		日刊通信	500	"
朝鮮英文通信	"		月刊通信	500	英 語
朝鮮通信資料	"		隔 月 刊	1,000	日 語
People's Korea	朝鮮新報社		週刊新聞	3,000	"
人 民 朝 鮮	"		月刊新聞	500	仏 語
"	"		"	500	스페인語
조 국	時 代 社	朝總聯中央常委	月間雜誌	2,000	한 글
조 선 청 년		青 年 同 盟	週刊雜誌	5,000	"
조 선 소 년		朝 青 少 年 部	不定期間	2,000	"
조 선 녀 성		女 性 同 盟	月間雜誌	5,000	"

刊行物	発行社	実質的인 発行者	形態	部数	用語
新しい世代	朝鮮青年社	青年同盟	月刊雑誌	300	日語
青年新書	"		単行本	50,000	"
朝鮮大学新聞		朝鮮大学校	不定期刊	500	한글 日語
朝鮮留学生新聞		留学生同盟	不定期刊	1,000	"
朝鮮學術通報		科学者協會	月刊雑誌	500	한글
朝鮮資料		朝鮮問題研究所	"	1,500	日語
朝鮮問題研究		"	年刊	1,000	"
朝 銀		信用組合	月刊雑誌	500	한글
朝鮮商工新聞	朝鮮 商工新聞社	商工聯	週刊新聞	3,000	"
朝鮮貿易月報		祖国貿易委員會	月刊雑誌	1,500	日語
祖国貿易		"	旬刊雑誌	500	한글
民族教育		中央教育會	月刊雑誌	2,000	"
教育會會報		"	月刊雑誌	2,000	"
조선 체육		体育聯合會	半月刊新聞	1,000	"
朝鮮体育		"	不定期刊	1,000	日語
統一評論	統一評論社	統一同志會	月刊雑誌	1,000	"
文學藝術		文學藝術家同盟	"	1,000	한글
群衆文芸		"	季刊雑誌	1,000	"
文芸通信		"	月刊雑誌	1,000	"
朝鮮面報	朝鮮面報社		月刊雑誌	35,000	日語
写真速報	朝鮮新報社		旬刊雑誌	1,000	한글

单一团体로는 이밖의 在日朝鮮人科学者協會(會長 李時求 會員 240名), 在日朝鮮文學藝術家同盟(代表 金順明 盟員 300名), 在日朝鮮人體育聯合會(會長 李浩然 會員 1,500名), 在日朝鮮人佛教徒聯盟(代表 金星海 盟員 70名) 및 在日朝鮮統一同志會(會長 徐鍾美 會員 20名)가 있으나 略하기로 한다.

C. 宣傳煽動現況

北韓의 對日 宣傳煽動的 패턴은 크게 나누어 다음 三段階로 区分할 수 있다.

第1段階(60年代까지) 對日 關係樹立을 위한 摸索期

第2段階(60年代) 韓美日體制분쇄를 위한 攻擊期

第3段階(70年代이후) 關係改善을 위한 接近과 平和共存期

물론 이와같은 区分은 北韓勞動黨의 對日外交方針의 再調整에 따른 그동안의 變化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들어난 결과이며 여기에 朝總聯의 活動內容을 年度別로 分析 整理해서 歸納된 것이다.

먼저 第1段階의 對日 關係樹立을 위한 摸索期는 平壤政權이 樹立된 以後 約 20年동안 北韓이 國際적으로 소련과 中共에 밀착하여 「모스크바」와 北京에 追從한 時期로 日本에 대해서는 北韓의 이미지를 되도록 좋게 宣傳하고 可能하면 友好關係樹立까지 밀고 나간다는 消極적인 段階라 할 수 있다.

이것은 1955年 2月 25日 北韓外相(당시) 南日이 「하도야마」(鳩山一郎)政府에 대해 國交正常化를 希冀하는 聲明을 發表하여 日本과의 和解用意을 뚜렷이 한 바 있고 이어 같은해 結成된 朝

總聯도 그들의 方針(五項)에서 「朝日兩國의 國交正常化」를 위해 豫備作業을 펴나가기로 決議하고 있다는 사실⁽¹⁴⁾로도 분명해진다.

특히 1955年 9月 金日成이 平壤에서 보낸 「在日朝鮮人運動에 對한 敎示」⁽¹⁵⁾에서도 『在日우리동포는 日本의 吉田나 鳩山를 타도하는 것이 主目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在日同胞에 對한 모든 支援을 約束한 뒤 『이런 모든 문제는 日本政府와 우리政府間의 平和共存에 의한 外交政策에 입각하여 해결되는 것이니 우선 共和國政府는 經濟 文化交流를 促進하는 事業을 積極 推進할 생각이다……』고 對日和解用意를 거듭 確認한 바 있다.

이와같은 北韓의 對日和解摸索態度에 따라 朝總聯은 祖國平和統一運動과 朝日會談反對, 僑胞들에 對한 民族教育強化, 民團과의 提携, 南北韓交流等 「平和愛護事業」에 置重하여 大衆운동과 宣傳을 벌였다. 그들은 韓日會談이 南北韓分斷을 永久化하고 北韓을 敵視하는 것이라고 猛烈히 反對했다.

第2段階의 韓美日体制분쇄를 위한 攻擊期는 韓日會談이 매듭지어진 1965年부터 나타난 「韓日간의 結탁」과 「日本軍國主義復活」에 대한 출기찬 非難으로 一貫된 期間이었다.

北韓은 1966年 4月29日 最高人民會議 第3期 第5回會議에서 「南朝鮮人民에게 보내는 呼訴文」⁽¹⁶⁾을 採択, 『①美軍撤退와 ②韓國政府를 전복하여 共產統一을 실현하자』고 선동했다. 또한 66年 10月의 朝鮮勞動黨代表者會議에서 金日成은 『日本軍國主義勢力은 美帝國主義를 배경으로 엉뚱한 大東亞共榮圈의 꿈을 실현하고자 妄想을 하고 있다.…… 朝鮮人民은 日本의 完全한 獨立과

民主的 發展을 위해 日本共産黨을 선두로 한 日本人民의 鬪爭을 全面的으로 支持하며 戰鬪的 連帶를 보낸다』⁽¹⁷⁾고 日本政府를 비난했다.

1970年 4月 5日 平壤을 방문한 周恩来가 金日成과 共同으로 發表한 聲明은 『美帝의 積極的인 保護下에 日本軍國主義는 이미 復活하여 아시아의 危險한 侵略勢力이 되어 있다…… 日本軍國主義는 朝鮮에 대한 새로운 戰爭陰謀를 꾸미고 있고……』라는 강경한 對日 공격을 퍼부었다.

이러는 가운데 北韓武裝게릴라가 서울에 浸透, 靑瓦台습격을 企圖한 사건이 發生하고 「프예블로」号 拉致사건과 EC 121 美偵察機 擊逐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北韓의 對日 姿勢硬化에는 1969年의 「닉슨」美大統領과 「사또」(佐藤) 日本首相의 共同聲明(韓國의 安全은 日本에 緊要하다……)으로 더욱 자극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第3段階의 關係改善을 위한 接近과 平和共存期는 1970年 2月 18日의 이른바 「닉슨·독트린」 發表로 始作된 美國의 아시아介入으로부터의 後退가 分明해지고 이어 71年 7月에 發表된 「닉슨」의 中共방문계획, 72年의 中共의 유엔加入 및 日·中共國交回復등 急變한 國際情勢와 71年 8月의 南北韓赤十字代表會談, 72年 7月 4日 平壤을 방문한 李厚洛中央情報部長과 金成柱 勞動黨組織部長과의 共同聲明으로 이루어진 南北調節委員會의 탄생등 劇的인 國內情勢 變化로 이른바 「데탕트」로 特徵지어지는 昨今の 情勢다.

北韓은 이와같은 和解무드와 平和共存趨勢에 편승, 對日外交에도 柔軟한 態度로 임하고 있다.

71年 9月 17日 日本 「아사히」新聞 「고토」(後藤基夫) 편집 국장의 平壤방문과 그의 金日成과의 會見에서 金日成은 유례없는 친밀한 態度로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역설하고 『平等과 內政不干涉 相互主義原則下에서 友好關係를 맺을 수 있다』고 日本과의 關係改善에 積極性을 보였다. 金日成은 日本과 國交樹立以前이라도 貿易, 自由往來, 文化交流, 記者交換등을 希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 10월에 東京都知事 「미노베」(美濃部亮夫)를 平壤에 초대한 金日成은 日本이 對北韓敵對政策을 버리면 日本과의 關係改善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72年 1月에는 「요미우리」(読売)新聞記者들을 平壤에 초대한 자리에서 金日成은 『南北韓이 平和協定을 締結하자』고 提議, 平和攻勢를 取하기도 했다.

이 時期는 또한 北韓이 自主路線을 천명, 이른바 主体思想을 강조하면서 中·소 그 어느便에도 크게 기울지 않는 独自の인 성격이 강한 外交政策을 採択하고 있는 것이 特色으로 꼽히고 있다.

北韓이 71年 11月 黨 5期 3次全員會議에서 「当面한 諸問題의 戰術的 轉換」을 決議한바 있는데⁽¹⁸⁾ 여기서 北韓은 急變하는 國際情勢를 勘案 外交政策의 戰術的인 轉換을 試圖, 自主的인 實利外交로 새로운 國際환경에 對処하면서 平和攻勢를 펴나가기로 한 것이다.

D. 日本의 反應

70年代 世界列強의 하나로 評價받고 있는 日本은 「오끼나와」施政權을 美國으로부터 반환받아 戰後處理의 大部分을 매듭지었으므로 對美關係에서 1對1의 對等한 關係를 維持하게 되었다.

美日關係의 새로운 展開는 日本으로 하여금 外交上의 選擇의 範圍를 크게 擴大하는 方向으로 誘導하고 있고 日本은 「自主外交」의 方向設定을 위해 作業을 活潑히 進行하고 있다.

戰後 最大問題의 하나였던 日中共和國交回復이 成就되고 貿易立國에 의한 經濟力의 成長이 美·소의 隊列에 다음가는 莫強한 国力을 배경으로 國際的 發言權을 強化해 나가는 反面 차츰 敵對關係解消를 摸索하고 있다.

國際環境改善과 友好분위기의 擴大라는 日本外交의 努力은 必然的으로 北韓과의 關係改善에도 積極적인 面을 띄게 되어 北韓의 對日平和攻勢에 迎合, 日朝關係에 새로운 局面이 나타나고 있다.

73年 1月の 北韓對外文化連絡協會副委員長 鄭光淳이 東京을 방문했을 때 「니카이도」(二階堂)官房長官이 그를 만나 會談을 한 事實이나, 日本外務省이 對北韓政策을 修正, 北韓과의 安定된 共存關係를 摸索하는 作業에 突入했다는 一部 報道는 今後에 빛어질 몇 가지 事態를 充分히 豫見할 수 있게 하는 信號로 解釋된다.

그것은 이미 「아사히」新聞편집국장이 平壤을 방문 金日成과 會見한 內容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서 있는 「미노베」東京都知事の 北韓訪問과 金日成과의 會談에서 거론된 「國交以前이라도 文化 經濟 人士交流를 活潑히 推進해야 한다」는 이른바 非政治的交流의

增進擴大인 것이다.

지난 5월에北韓의 万寿台무용단이 日本訪問公演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만한 일이었다.

北韓의 宣傳에 對한 日本의 反應은 지금까지 大部分의 境遇 日本매스컴에 의해 비교적 肯定的인 內容으로 取扱 報道되어지는 傾向이다. 日本저널리즘이 北韓관계記事나 解説에 많은 紙面을 할애하는데는 그것이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韓國關係에 比해서) 說明도 있을 수 있지만 뉴스를 提供하는 뉴스소스가 日本저널리스트와 特別한 關係를 맺고 있고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進歩主義的 知識人으로 北韓側에 同情的 태도를 갖고 있다는 日本言論의 内部 問題가 作用하기 때문인것 같다.

10万名 가까운 잘 訓練된 朝總聯組織員들과 이 가운데서 特別히 選定된 宣傳煽動員들은 퓨리탄적 熱誠으로 日本言論에 浸透, 獻身的인 活動을 하고 있고 朝總聯은 이들에 對해 아낌없는 資金 支援을 해주고 있다.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朝鮮大學校는 共産党幹部養成의 總本山으로 이곳을 거쳐 나온 젊은 에리트들은 北韓의 宣傳要員이 되어 日本社會에서 猛烈히 活動을 하게 된다. 日本政府는 朝鮮大學校가 日本을 共産化하기 위한 政治活動의 본거지가 되어 있고 學生들은 對韓工作을 하기 위한 特別教育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朝鮮大學校는 1956年 設立當時부터 지금까지 北韓으로 부터 約 70億円の 資金을 받아 運營되고 있는데 이것은 民族教育이라는 이름으로 在學生 1千餘名の 젊은이들에게 共産主義革命理論을 가르

치어 共產革命의 거점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이다. (19)

朝總聯은 이처럼 잘 訓練된 要員들을 이용하여 ①國際的인 行事 주로 스포츠경기가 있을 때 ②이른바 그들의 國慶節이나 記念行事가 있을 때 ③日本内에서 北韓關係展示會가 있을 때 ④ 藝術文化活動이 있을 때 集中的인 攻勢로 對言論工作을 펴서 이를 輿論化하는 傾向이고 朝總聯系 日本記者들을 確保하여 이들에게 온갖 便宜를 提供하여 平壤訪問招請을 미끼로 日本記者들의 忠誠心競争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代表的 言論機關幹部들을 相對로 平壤支局開設에 優先權을 줄 수도 있음을 暗示, 그들에게 有利한 報道와 論評을 提供하도록 工作을 펴오고 있다.

72年初부터 北韓은 對日本言論工作을 본격화하여 主要新聞 放送 通信의 中견記者 35名을 平壤에 招請 환대했다.

「朝鮮新報」가 日本人을 相對로 日語版 「朝鮮時報」를 내어 日本左翼系團體와 進歩的文化人들에게 配布되고 있는데 宣傳效果가 매우 큰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朝鮮通信」은 平壤의 「朝鮮中央通信」의 日本支社格인데 平壤放送을 듣고 이를 편집하여 配布하고 있는데 그 役割은 매우 크고 또 日本言論이 이를 轉載하고 있어 利用率이 높은 셈이다.

北韓의 新聞·定期刊行物, 學術文獻, 黨宣傳文書等 40餘種을 取扱 販賣하고 있는 「九月書房」은 日本内에 6個支店을 두고 있는데 朝總聯系學校의 教科書出版을 担当하고 있는 「學友書房」과 함께 書籍普及源으로 널리 利用되고 있다.

朝總聯의 活動과 宣傳이 비교적 肯定的인 反應을 日本社會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日本國民들이 思想團體의 活動에는 無關心한데 反해 進歩的 知識人들과 一般 左翼系社會團體들이 朝總聯 活動을 支持하고 있는데 이 少數派支持運動이 輿論操作에 적지 아니 作用한다는게 알려진 하나의 상식이다.

여기서 朝總聯과 對立的인 民團에 대한 在日僑胞들의 支持反應을 소개하면

支持團體에 관한 앙케이트 (20)
 (151 名)

<p>1. 支持하는 團體</p> <p>民團 38</p> <p>朝總聯 51</p> <p>日本團體 2</p> <p>無 70</p>	<p>2. 支持하는 理由</p> <p>思想上 11</p> <p>民族的立場 26</p> <p>마음의 依持로 5</p> <p>便宜上 10</p> <p>職業上 17</p> <p>友人關係로 12</p>
<p>3. 支持정도 (81 名)</p> <p>적극적 11</p> <p>호응정도 20</p> <p>소극적 5</p> <p>형식적 41</p> <p>좋은정도 4</p>	<p>4. 支持團體의 方向方式에 滿足 (81 名)</p> <p>만족이다 10</p> <p>불만이다 56</p> <p>아주불만이다 15</p>

양케이트에 응한 151명의 僑胞들은 民團보다는 朝總聯쪽을 支持하는 사람이 약간 많고 支持하는 理由가운데 「民族的 立場」 때문이라고 答한 사람이 「思想上」의 理由의 두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흥미있는 것은 朝總聯을 支持하는 사람들의 支持정도는 調査對象의 半이 「形式的」인 支持에 不過하다고 答하면서 朝總聯의 運動方向과 方式에는 「不滿」이며 「아주 不滿」이라고 한 사람이 圧倒的인데 비해 「만족이다」고 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調査에서 들어난 사실은 在日僑胞들이 民團보다는 朝總聯에 대해서 약간 더 많은 支持를 하고 있고 그들의 支持는 「民族的」이라는 感想的 概念때문이기 하나 실제로 그들의 活動에 큰 不滿이라는 점과 朝總聯을 支持하되 形式的으로 한다는 것은 무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와같은 사실은 日本人을 相對로 해서 調査를 하더라도 비슷하게 그 反應이 나타나지 않을까 推測된다.

3. 結 言

緊張緩和의 追求와 平和共存에의 順應이란 北韓의 對外政策은 70年代 國際環境에 알맞는 現實主義的 選擇으로서 對外的으로 國際地位를 向上시켜 孤立을 脫皮하고 對內的으로는 安保体制를 공고히 하며 經濟發展을 도모하려는 合理的인 判斷이라 아니할 수 없다.

宗主국이었던 同盟國 소련과 中共이 對立하고 있고 그들이 제각기 美國을 비롯한 西方側과의 關係개선을 다투어 摸索하고 있는 急速한 環境變化에서 金日成은 對美·對西方接近을 조심스럽게 시도, 柔軟한 態度를 보이기 始作했다.

72年 2月の 美·中共上海共同聲明을 論評한 3月4日字 「로동신문」社說은 美·中共關係改進黨을 肯定的으로 평가했고 이어 「로저스」美國務長官이 記者회견에서 北韓이 對美接近을 바라고 있다는 某種 信號가 있다고 밝힌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北韓의 柔軟한 態度는 72年初의 金日成과 「요미우리」新聞記者 및 「가와사기」(川崎)社會黨國際局長과의 會見에서 밝혀졌듯이 20年동안 출판 北韓이 主張해 온 駐韓美軍撤収要求가 후퇴하고 南北韓相互不可侵條約과 平和協定の 締結이 提起된 것으로도 뚜렷해진다.

70年代 國際情勢와 韓國實情이 客觀적으로 北韓의 主張인 南韓에서의 革命勢力에 의한 「南朝鮮革命」論이 實現되기 어렵도록 安定化해 있다는 事實은 北韓으로 하여금 最小限의 目的, 즉 北韓의 地位向上과 經濟發展을 追求할 수 밖에 없다는 制限이 되고 있어 결국 北韓은 「두개의 朝鮮」이나 「한民族內 兩個의 政治體制」라는 現狀固定概念을 導出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對外政策의 窮極目標을 南韓의 共產化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勝利에 두고 있는 北韓의 侵略性과 膨脹主義가 本質적인 變化를 일으켰다고는 速斷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周辺政勢變化에 따른 外交上 戰術變化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의 對外弘報活動, 特히 對日宣傳煽動은 ①統韓問題에 있어 有利한 輿論을 조작, 상대적으로 韓圉의 不利益과 孤立을 招來케 하며 ②北韓側의 偽裝平和攻勢를 合理化하기 위해 南韓에서 人民革命鬪爭이 높아가고 있다고 宣傳하므로써 北韓의 對南侵略攻勢를 合法化하며 ③金日成의 唯一思想을 宣傳하며 金日成이 民族의 指導者이고 世界共產革命의 先導者임을 宣傳하고 ④北韓實情을 社會主義樂園이라고 과대선전하며 ⑤國際情勢의 趨勢가 現狀固定化로 기울고 있는 것을 利用, 「두개의 朝鮮」을 概成事實化하고 ⑥北韓이 平和愛護에 충실하고 國際秩序를 尊重한다는 인상을 강조, 유엔을 비롯한 傘下團體에의 가입 및 國際行事に 積極 參與토록 하여 北韓의 國際地位를 높이는 데 注力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日本안에서의 北韓의 宣傳은 朝總聯이라는 獻身的 團體를 통해 広範圍하게 僑胞사회뿐 아니라 日本大衆에게 浸透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南北等距離外交」의 실현을 1次的인 目標로 두고 있는 北韓은 窮極的으로 「先朝日國交 後韓日條約廢棄」方式을 위해 日本政府에게 「北韓敵視政策」을 철폐하기를 促求하고 있다.

이와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北韓은 強力한 「人民外交」를 展開, 親北韓노선의 日本人들 뿐만 아니라 中立的이거나 利害關係를 달리고 있는 各界人士들까지 北韓訪問招請形式으로 포섭하는데 熱中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自民黨議員들의 平壤방문도 包含되어 있다.

北韓의 活潑한 對日 宣傳攻勢는 日本의 一部 支持勢力의 政府에 對한 꾸준한 壓力과 日本政府의 平和外交라는 方向 때문에 沮止하기란 不可能한 것 같다. 그러나 北韓側의 對日 宣傳은 韓國側의 勞力에 따라 어느정도 鈍化시키거나 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 한다.

몇 가지 對備策을 摘示해 보면

- ① 現存하는 機構나 人員을 再活用하여 對日 宣傳을 強化하는 方 案과 ② 새로운 機構와 人員을 新設하여 全面改編하는 方案으로 區別해 볼 때 ①의 경우 弘報担当者들의 質을 官吏出身으로 부터 文化人 藝術人 또는 言論人으로 代替하여 日本輿論指導者들과 同類 職을 갖도록 하며 항상 共同의 對話를 維持시켜나가도록 한다. 또한 宣傳內容에 있어서도 PR中心에 치중하는 現狀으로 부터 事實을 가지고 事實의 把握과 判斷에 도움을 주는 인포메이션 (Information) 中心으로 전환, 信賴 (Credibility) 의 架橋를 도록 노력하는데 宣傳要員의 質質은 正直, 勤勉, 高度의 人格을 지닌 사람이 短期勤務보다는 長期勤務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의 경우에는 駐日公報館에 在日僑胞出身의 現地職員을 多數特 가하여 一定한 訓練과 教育을 거친 뒤 對外宣傳要員으로 活用하는 이들의 身分은 本國派遣職員과 同等한 保障을 해주고 적절한 補給費를 支給해준다. 또한 民團의 宣傳部를 組織強化하여 末端細 小職員으로 確保하므로서 朝總聯과 1對1의 體制를 갖추게 한다. 民團에 대해서도 訓練과 教育을 實施하고 生活保障을 해주어 말 일에만 專念하도록 한다. 嚴選된 人員에 철저한 指揮監督으로

인센티브 시스템 (Incentive System) 에 의해 戰意를 고취한다.

①이나 ②의 경우 總責任者는 상당한 權限이 부여되므로서 豫算
上의 自由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 理想的이며 招請訪問者選定은 卽
決主義로 하여 타이밍에 損失이 없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어떠한 計劃이던 그것이 아무리 優秀하다 하더라도 中心이 되는
人間의 質이 그 成敗를 左右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對日 弘報活動
에는 人事上의 選擇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参 考 文 献

- (1) 金日成主席 73 年度 新年辞가운데서 月刊 「北韓」 2 月号
P 152 (北韓研究所)
- (2) 後藤基夫 「아사히」編輯局長의 『金日成首相 「友好」를語る』
平壤發 記事에서 1971 年 9 月 27 日字 朝刊 (朝日新聞)
- (3) 鄭光淳會見記에서 東京新聞 1973 年 1 月 24 日字
- (4) 「南北朝鮮의 平和協定을」提下의 読売新聞 高木, 佃兩特派員 平
壤發記事에서 1972 年 1 月 11 日字 朝刊 (読売新聞)
- (5) 北韓最高人民會議第 5 期第 1 次會議에서의 金日成연설가운데서
1972 年 12 月 25 日字 「노동신문」
- (6) 東京新聞 1973 年 1 月 7 日字
- (7) F. Bowen Evans 著 「World Wide Communist Propaganda
Activities」
- (8) 「在日朝鮮人總聯合會結成大會決定書」중 PP 1 ~ 10 (1955)
- (9) 朝總聯機關紙 「解放新聞」 1955 年 10 月 25 日字
- (10) 社会運動調査會編 「左翼団体事典」 P. 631 (1966)
- (11) 金炳旭著 「共產主義의 活動과 實際」 PP. 882 ~ 883 (1972)
- (12) 朝日新聞調査研究室編 「南北朝鮮의 現状」下卷 北朝鮮篇
P. 209 (1962)
- (13) 共產圈問題研究所編 「北韓總覽」 P. 280 및 著者 메모補充
- (14) 「재일조선인 총연합회 결성대회 결정서」 PP. 104 ~ 108
- (15) 「解放新聞」 1955 年 10 月 25 日字

- (16) 東亜日報安保統一問題調査研究会編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
P.348 (1971)
- (17) 読売新聞社国際情勢調査会編 「日本とアジアの安全保障」 P.354
(1969)
- (18) 金炳旭著 「共産主義의 活動과 實際」 P.826 (1972)
- (19) 新東亜 1968年 1月号 PP.302 ~ 310
- (20) 田駿著 「朝総聯研究」 <2> P.171 (1972)

第三章 北韓의 對東南亞宣傳政策概況

2次世界大戰時까지 西歐와 日本의 植民地統治下에 있었던 東南亞 地域 여러 나라들의 戰後 政治的 特色은 反植民主義와 民族主義路線 이다.

지난 四半世紀 동안 東南亞 여러 나라들은 美國의 中共封鎖政策과 中共을 假想敵으로 결성된 地域內軍事同盟下에서 集團安全保障體制를 維持해 왔으나 一部 非同盟을 표방한 國家들은 美國의 이러한 主 導的 役割을 아시아에 대한 「西方側의 干涉」으로 크게 반발, 오히려 「아시아인의 結束」을 호소하고 나왔다.

一部的 이와같은 反美反西方路線을 표방한 國家들의 경우 맑시즘 의 영향이 뿌리깊이 작용, 특히 젊은 知識人들간에 流行되어 民族 主義운동을 능가하는 사례까지 빚어내기도 했다.

따라서 많은 이 地域의 指導者들은 대체로 「社會主義」體制를 환영, 이른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追求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東南亞를 휩쓴 가장 광범한 理念이 이른바 「非同盟主義」 或은 「中立主義」였다고 할 수 있다.

印度, 「버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세론), 「네팔」 및 「캄보디아」와 「싱가폴」이 「中立主義」를 표방해 오고 있다.

南部越南, 「필리핀」, 泰國, 「파키스탄」 그리고 「말레이지아」의 指導者들은 中立主義를 배격해 왔지만 이런 나라에서조차도 中立主義者들의 활약은 무시할 수 없는 勢力을 형성하고 있다. (1)

1960年代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大統領이 主導한 非同盟 運動(一名 「반동」會議)은 이와 같은 背境에서 地域内國家들의 積極적인 呼応으로 亞阿블력을 形成하는 「第三世界」의 核心體가 되었지만 中共과 北韓의 革命理論에의 傾倒와 親共產主義的 路線으로 스스로 消滅되는 悲運을 맞이했음을 본다.

北韓 金日成이 1965年 4月 14日 「인도네시아」의 「아리아루합」社會科學院에서 共產主義革命論을 闢駁하고 北韓의 이론바 社會主義建設, 南韓에서의 共產革命勢力的 強化, 國際共產主義勢力的 團結을 호소한 것은 「第三勢力」의 團結을 오히려 沮害한 逆效果를 빚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北韓의 對東南進出은 「인도네시아」의 北韓大使館을 中心으로 「싱가폴」의 總領事館, 그리고 印度,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및 「버마」에 있는 그들의 公館을 발판으로 이를 拠点 삼아 公式 非公式 루트를 이용하여 該當國家의 人士를 個別招請하거나 北韓人士를 파견 방문케 하는 초보적인 단계로 부터 政府使節團의 交換, 通商 或은 文化代表部를 설치하거나 나가서는 이 代表部를 승격시켜 外交關係를 수립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들의 對外宣傳政策은 一般的으로 世界各國에서 輿論造作을 위해 ① 北韓의 平和愛護와 自主路線宣傳 ② 越南戰과 美國 및 同盟國의 介入을 非難하는 內容 ③ 「社會主義樂園北韓」과 「韓國의 落後된 實情」의 造作宣傳 ④ 外勢를 배격한 自主的 南北韓平和統一論 ⑤ 金日成의 이론바 「唯一思想」의 宣傳과 그가 韓民族의 「唯一한

指導者」라는 點 ⑥ 이른바 被壓迫民族의 鬭爭을 高취하는 것 과 連帶意識強調등이 主된 內容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最近 北韓은 1972年을 그들의 「外交的 해」로 설정, 積極外交로 中立國을 包含한 西方國家들과의 外交관계수립을 서두르고 있는데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西歐 여러 나라와 國交를 맺는等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른 現狀固定化에 의한 「두개의 朝鮮」과 유엔加入을 위한 長期的인 布石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對東南亞宣傳活動의 目標도 ① 北韓의 國際地位向上 ② 北韓의 發展狀을 과시하여 同調勢力을 確保하며 ③ 초청방문外交와 文化交流를 통해 脫이데오로기의 國際조류를 利用 對象國에의 침투를 꾀하고 ④ 韓國과 關係가 깊은 國家라 할지라도 相對國의 現實主義的 外交路線을 最大限으로 利用, 韓國과의 유대를 弱化 또는 분화하도록 離間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要約할 수 있다. (3)

参 考 文 献

- (1) A·Doak Barnett 著 「Communist China And Asia」
PP.291 ~ 302 (1966)
- (2) 東亜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査研究会編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
P.350 (1971)
- (3) 金炯旭著 「共産主義의 活動斗 實際」 PP.877 ~ 884

第四章 北韓의 地域別 對外關係

1. 北韓의 對中蘇關係

北韓의 對外政策의 가장 중요한 核心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北韓의 對中蘇政策이라고 하겠다. 北韓은 中蘇兩國과 地理, 歷史, 政治, 經濟적으로 密接한 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中蘇兩國間의 紛爭의 禍中에서 中立을 유지하려고 努力해 왔으나 急變하는 情勢속에서 그러한 中立을 堅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 때때로 傍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共產國內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同盟國 포섭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中蘇兩國은 勢力擴張을 위한 치열한 競爭을 벌려왔으므로 北韓은 그러한 力学關係를 最大限度로 利用하여 實利를 追求하면서 스스로의 政治, 經濟, 軍事的 獨立의 基礎를 구축함과 동시에 對內外的으로 自主性を 維持하려고 힘쓰게 되었다.

北韓은 72年中에 그의 宗主國인 中蘇兩國과의 招請, 訪問外交를 擴大 發展시켜왔는데 그중에서도 招請보다도 訪問에 더욱 置重했다.

72年中 中共과 蘇聯에 대한 招請比率은 26對27로 거의 對等한 것이었는데 訪問의 경우는 37對45로 量的面에서는 對蘇關係 더 活潑했고 한편 質的面에서는 中共과의 關係가 보다 強化되었다고도 보겠다.

北韓은 특히 70年4月の 周恩來의 平壤訪問을 계기로 親中共的인 外交性向을 보여 왔던 것은 사실이였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事態는 越南終戰을 앞두고 姬鵬飛 中共外相이 北韓을 訪問(72.12)했고 休戰成立後 지난 2月7日 許淡 北韓 外交部長의 中共訪問이 있었는데 특히 72年中 北韓과 修交한 「카메룬」, 「루완다」, 「칠레」, 「말라가시」, 「자이르」, 「다호메」 「어퍼볼타」등은 中共과 修交를 한 직후에 北韓을 承認하였고

「우간다」, 「파키스탄」, 「모리셔스」, 「잠비아」등도 과거 中共을承認한 國家들이었다는 事實로 미루어 볼때 北韓이 中共의 外交力量에 적지않게 힘을 입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北韓은 美·中共會議에서 심각한 衝擊을 받게된 것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美國에 대한 北京의 和害움직임은 北韓으로서는 小國의 存在의 意思를 無視한 大國間의 利己的인 去來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中共은 「크메르」의 「시아누크」를 平壤에 보내 3週日 동안에 걸쳐 平壤當局者들을 說得시켜 결국 「닉슨」의 中共訪問은 『美帝國主義가 白旗를 들고 北京에 오는것』이라는 發言을 하게끔 만들었다.

결국 北韓이 中共의 對美和解를 할수 없이 同調하면서도 北京에 대한 警戒心만은 여전히 살아지지 않고 있음이 分明하다.

한편 蘇聯은 「닉슨」의 中共訪問發表後 越盟과 北韓의 反中共感情을 선동하기 위해 여러가지 工作을 했었으나 막상 「닉슨」의 「모스크바」訪問이 決定되자 이젠 北韓에 대한 포섭工作을 다소 늦추고 冷情한 立場으로 되돌아 가게 되었다.

그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크레믈린」이 内心은 金日成을 탐탁치 않게 여겨 강한 不信感을 품고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北韓이 北韓이 經濟, 軍備面에서 어쩔수 없이 蘇聯에 依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自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71年 12月 北韓 副首相 鄭準沢이 蘇聯을 訪問, 港灣技術整備援助協

定에 調印했을때 「프라우다」紙는 鄭準沢의 訪問을 「訪問과 會談」의 雜報取扱欄에 간단히 報道한 것과 같은 例는 蘇聯의 北韓에 대한 大國主義的인 輕侮感의 表示라고도 解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72年2月 北韓外相 許淡이 東歐曆訪途上 蘇聯을 訪問했을 때에는 「브레즈네프」가 直接 許淡과 會見까지 했는데 許淡訪問이 매마침 「닉슨」이 中共을 訪問中이었던 때라 蘇聯은 許의 蘇聯訪問을 最大限으로 宣傳할 必要性을 느꼈을 것이다.

한편 「모스크바」에서의 美蘇頂上會談後 얼마 안가 發表된 7.4 共同聲明에 대해 蘇聯의 「프라우다」紙는 다음날인 7月5日字로 재빨리 同聲明을 論評없이 詳細히 報道하고 그 다음날 6日字엔 朴成哲의 記者會見 內容을 또한 자세하게 報道함으로써 關心을 表明했다.

그러나 大國의 介入없는 南北韓의 自主統一에 관한 北韓의 主張에 대해서는 비록 蘇聯이 직접적인 批判은 안했지만 社會主義陣營의 國際主義團結의 立場에서 전적으로 贊成한 것은 아닌것 같다.

蘇聯은 결국 「프로레타리아」國際主義의 名分下에서 또 共產圈의 先輩로서 北韓에 대한 勸告 또는 助言의 形式으로 大國主義的인 干涉을 行할 權利를 保留한 셈이다.

이는 72年9月 北韓創建 24周年에 보인 蘇聯의 反應에서도 짐작이 간다. 「크레믈린」은 여지껏 北韓의 平和的, 民主的祖國統一 努力에 대한 支持를 表明했으면서도 「自主的」統一을 支持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同 記念日엔 中共은 毛沢東, 董必武(國家副主席) 朱德(人民代表

大会常任委員長), 周恩來의 4 人의 連署로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北韓의 「自主적인 平和統一」을 두번씩이나 強調하였는데 蘇聯三首
腦의 메시지 속에는 「自主的」統一이란 말은 全然 나오지 않았었
다. 그리면서도 「모스크바」駐在 北韓大使館의 祝賀宴엔 「마즈로
프」第一副首相이 出席했고 또 9月3日부터 11日 사이엔 「브레
즈네프」의 心復이며 共產圈諸黨과의 關係를 責任맡고 있는 「카토
세프」書記가 北韓을 訪問하여 金日成을 만나 蘇聯, 北韓兩黨關係의
強化를 위한 協議를 했던 것이다.

결국 蘇聯의 北韓에 대한 立場은 두가지의 基本方向으로 要約할
수 있겠는데 그 하나는 当面한 目標로는 平壤과 北京의 거리를
되도록 넓히려는 것일 것이다. 北韓은 蘇聯으로서는 取扱하기 힘
들고 또 負擔이 되는 存在이지만 北韓을 蘇聯勢力圈內에 계속 머
물게 하지 않는限 蘇聯은 마음을 놓지 못할 것이다.

둘째는 美·中共의 接近으로 中蘇對立關係가 더욱 複雜해지고 中
共에 對抗하는 蘇聯에 있어선 美國과 日本의 價值가 한층 높아지
고 또 中蘇國境에서 긴장이 持續되고 있는 狀況에서 韓半島에 또
다시 戰爭이 일어나 越盟에 대한 蘇聯의 微妙하고 困難한 關係가
北韓에도 移植되는 것과 같은 事態를 蘇聯은 극도로 警戒하고 있
다. 그리고 蘇聯은 美·日 또는 그 双方이 中共과 結託하는 것
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韓半島의 武力統一뿐 아니라 同地域에서의
緊張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蘇聯이 現在 바라는 것은 平和共存의 原則에 立脚한
分斷國家의 現狀維持일 것이다.

실사 美軍이 韓國서 철수하고 美國의 「아시아」政策이 점차 不干涉의 方向으로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당분간 蘇聯은 北韓의 武力統一과 같은 움직임은 물론 韓半島의 緊張狀態는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中共은 蘇聯에 對抗하기 위해 周辺國關係의 正常化란 大前提下에 그 자신의 安保와도 直接的인 關聯이 있는 北韓을 어떻게 해서든지 蘇聯으로부터 격리시켜 中共의 勢力圈內에 密着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70年代에 들어와 中共은 적어도 表面的인 言動에서 볼때 北韓의 忠實한 代辯者의 役割을 해왔다고 보겠다. 그동안 中共과 北韓이 꾸준히 步調를 함께 하면서 主張해 온 論點을 綜合整理해 본다면 ①革命思想의 고취 ②兩大超強大(美·蘇)의 霸權主義反對 ③緊張緩和와 平和追求 ④反美帝, 反蘇修, 反日軍國主義 ⑤中共과 北韓間의 戰鬪的友誼團結強化促求 ⑥民族自決原則에 立脚한 南北韓間의 自主的平和統一促求 ⑦外勢排擊 ⑧美軍撤収와 「언커크」解体등의 諸點으로 集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表面的인 兩者間의 一體感이 美·中共會談을 轉機로 중대한 試鍊을 맞게된 사실은 또한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美·中共會談發表에 이어 「勞動新聞」은 『國際革命勢力的 團結強化는 우리黨의 不變의 政策路線』이라는 題下의 論說을 揭載하여 中共의 對美接近에 대해 은근히 不滿을 表示했었다.

北韓의 이러한 反應에 대해 中共은 「시아누크」의 平壤派遣등으로 緊要한 說得 끝에 北韓의 同調를 일단 얻은 셈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北韓이 中共에 대한 警戒心과 社會主義大國에 대한 不信感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北韓은 이데오로기面에서의 유대 經濟, 軍事援助등의 實利面 追求를 위해서 앞으로 中蘇兩國과의 緊密한 友好關係의 維持發展을 強化시켜 나가겠지만 또한편 그들의 兩宗主國의 對美·日接近政策展開라는 새로운 情勢속에서 적극적인 對外關係의 擴大라는 方向轉換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2. 北韓의 對美洲關係

美蘇, 美中共間의 關係改善과 全般的인 緊張緩和의 國際潮流속에서 最近 北韓의 對美姿勢에 變化가 일기 시작하고 있다.

對內外的인 宣傳文句에 있어서는 美國에 대한 비난에 별로 두드러진 變化를 찾아볼수 없으나 그러나 具體的인 事例를 통해 對美姿勢에 伸縮性을 보이고 있다.

그 實例로 北韓은 美國의 言論人들을 초청한바 있었다. 71年 7月 A P 通信의 「베네딕도·데이비드」(필리핀國籍) 記者를 위시해서 72年 5月初 「뉴욕·타임스」의 「해리슨·솔즈베리」와 「존·리」記者 그리고 72年 5月 下旬부터 6月上旬에 걸쳐 「워싱턴·포스트」의 「셀릭·해리슨」記者를 平壤에 각각 招請했고 또 8月엔 「캐나다」의 著名言論人 「마크·게인」氏가 北韓을 訪問하여 제각기 北韓에 대한 報道를 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西方世界엔 閉鎖的이었던 北韓의 實情이 西方記者의 報道를 통해 西方側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北韓에 대한 報道는 北韓의 극단적인 強硬路線, 閉鎖性, 金日成個人崇拜, 軍費狂奔, 取材不便 등 좋지 않은 면도 다루었지만 反面 相當한 程度의 經濟的 自立을 이룩했다는 發展相이라든가 平和微笑攻勢 등의 면도 소개하게 되어 결국 北韓에 대한 世界의 注目과 關心을 불러일으켰다는 적지않은 効果를 거둔것만은 사실이다.

「솔즈베리」氏는 特히 金日成과의 會談에서 美國과 北韓間의 記者交換問題도 提議한바 있어 만약에 北韓이 원한다면 北韓記者의 美國訪問도 可能한 問題가 될 것으로 본다.

물론 피차에 相對國에 대해 좋은 면보다는 자연 나쁜면의 記事를 보다 더 다루게 될것임은 사실일것이고 특히 北韓記者의 경우는 對美政策이 바뀌지 않는限 좋은 면의 記事는 쓸래야 쓸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問題는 그와같은 交流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自体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北韓은 美國의 言論人 招請으로 소위 「人民外交」攻勢의 序幕을 열었다고 보겠다. 그런데 北韓의 이와같은 對美立場 變化의 動機는 첫째는 強大國間의 緊張緩和政策에 자극받아 伸縮性 있는 對外姿勢로 그에 対処해 나가지 않으면 國際的 孤立을 免치 못할것이라는 國際政治秩序의 構造的 變化에 따른 情勢判斷에 입각한 것임은 말할것도 없을 것이다.

金日成은 71年12月 日本의 朝日新聞編集局長과의 會見에서 『우리는 우리의 外交政策을 再檢討中이다. 우리는 緊張緩和가 하나의 大勢를 이루고 있는 이때 이 潮流에 거슬리는 政策을 추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바 있고 72年1月 日本의 読売新聞과의 會見

에서도 같은 見解를 밝힌바 있지만 北韓은 특히 「닉슨」의 北京 訪問以後 현저히 들어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解氷 潮流속에서 홀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西方世界에도 그 자신의 地位를 再確立 해야만 하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北韓은 對美接近을 통해 從來의 韓美間의 緊密한 關係를 相對적으로 거리를 벌여지게 하면서 일방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계기로 自由陣營속으로 進出할 수 있는 突破口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美國의 對北韓政策을 살펴보면 72年3月7日 「로저스」美 國務長官은 『北韓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關係를 改善하려는 것이 現美國政府의 原則적인 方針』이라고 밝혔고 同長官은 이어 「씨토」(東南亞條約機構)理事會에서 北韓을 「DPRK」라고 그들의 公式 名稱을 呼稱하였고 한편 「토마스·무어」美合參議長은 昨年 3月 15日 下院外交委에서의 証言을 통해 『앞으로 2, 3年内에 中共 및 北韓과의 關係를 현저히 改善시키는 것이 우리의 確固한 希望이다』라고 말한바 있었다.

다음에 美國務省은 지난 3月 16日, 3月 15日字로 끝나는 北韓, 越盟, 「큐바」에 대한 旅行禁止措置를 6個月間 延長한다고 發表했다.

國務省은 慣例적으로 每年 3月에 1年 單位로 旅行禁止延長措置를 取해 왔었는데 今年따라 1年單位를 6個月로 短縮시켰는 사실은 注目을 끌게한다.

이 사실은 越盟과의 和解가 제대로 되고 또 飛行機拉致防止協

定締結등으로 關係改善의 길이 트인 「큐바」와 앞으로 또다시 關係가 惡化되지 않는 以上 6個月後인 즉 今年9月엔 적어도 越盟, 「큐바」에 대한 旅行禁止가 解除될 可能性이 짙다고 보겠는데 北韓의 경우도 그에 해당할지는 速斷을 不許할 問題이지만 아무튼 이번 措置가 3個地域을 一括 處理했다는 점에서 北韓의 경우도 만약 解除가 되는 경우에 한꺼번에 適用될 公算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旅行制限이 철회된다면 그것은 外交的 承認의 前段階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美國의 對北韓政策은 美·中共關係의 進展, 南北會談의 추이, 韓國問題에 대한 美國의 對「유엔」戰略, 北韓의 對美姿勢등 複合的인 要因들을 살펴가면서 그 向方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美國이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바라는限 그리고 北韓이 對美接近을 계속 試圖하는限 美國의 北韓에 대한 某種의 關係改善策決定은 그리 먼 將來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다음에 北韓은 中南美諸國에도 적극적인 外交攻勢를 展開하여 72年6月1日엔 「칠레」와 正式 外交關係를 樹立했는데 이는 1960年 「큐바」와 修交한 以來 中南美에서의 두번째 修交이다. 그리고 「칠레」以外에도 「우루과이」, 「아르헨틴」, 「페루」, 「멕시코」등지에 拠点을 確保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71년에 들어와 「칠레」나 「큐바」는 말할 것도 없고 韓國戰 參戰國家인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틴」, 「우루과이」, 「파나마」, 「에쿠아돌」, 「베네주엘라」, 「페루」諸國의 左翼團體,

金日成研究小組, 国会議員 등을 平壤으로 招請하였고, 지난 5月5日엔 「칠레」의 「아엔데」大統領의 누이동생인 「라우다·아엔데」女史를 招請하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諸국은 民族主義 내지 經濟的 自覺에 눈을 뜨고 美國의 圧到的인 影響에서 漸次 離脫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北韓은 그와같은 情勢를 奇貨로 反美思想과 「내셔널리즘」을 호소하면서 接近을 피하고 있다.

北韓의 對中南美外交戰術은 먼저 中南美諸국의 共産黨과 紐帶를 맺은 다음 民間 베이스의 各種 使節團을 交換하든가 또는 親北韓 人士를 포섭하여 親北韓團體를 構成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나라 政府要路에 壓力을 加하여 北韓과의 文化交流 經濟交流를 促進케 하고 나아가 外交關係樹立의 段階에 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南美地域은 「아프리카」地域과 마찬가지로 北韓이 浸透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는 地域이며 과거엔 美國一辺倒性向을 보이던 中南美 20 余個국이 차츰 美國의 影響을 벗어나 獨自路線을 걸게되자 北韓이 파고들어갈 수 있는 餘地가 많은地域이 되었다.

3. 北韓의 對西歐關係

北韓은 對西歐關係에서 實利外交에 力點을 두면서 특히 最近에 北歐諸國과의 關係擴大에 急進展을 보이고 있다.

西方國家로는 처음으로 「스웨덴」이 지난 4月6日 北韓을 承認했고 이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등 北歐 5個국이 早晚間 北韓을 正式 承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北韓의 對西歐침투活動의 進展은 西歐諸國의 漸增하는 現實主義的 態도와 이들 諸國의 分斷國問題에 對한 兩當事者의 同等 等取扱추세에 發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北韓의 對西歐諸國에 對한 침투양상은 從來 正常的인 패턴으로 되었던 즉 親善團體의 結成, 文化交流, 著名人士 招請訪問, 公報館 및 貿易代表部設置에 이어 同時修交의 方式으로 나가고 있다.

「스웨덴」에 對해서 北韓은 지난 70年5月 公報館設置以來 30余名의 公報官을 個人資格으로 들여보냈는데 이들은 左派聯合勢力의 背後에서 갖은 策動을 다 부려왔었다.

70年부터 72年 사이에 數十 차례에 걸쳐 現地新聞에 「스웨덴」 語와 英語로 全面廣告를 내는가 하면 僑胞들을 상대로한 各種 發刊物을 配布하는등 엄청난 物量宣傳攻勢를 펴기로 했었다.

또 最近엔 孔鎮泰 對外經濟事業部長을 團長으로 한 經濟代表團이 지난 2月13日 「핀란드」訪問을 始發點으로 「놀웨이」(2.17) 「덴마크」(2.26), 「아일랜드」(3.5), 「스웨덴」(3.9)을 거쳐 3月15日 「핀란드」를 再次 訪問하기도 했다.

한편 桂應泰貿易部長을 團長으로 한 貿易代表團이 지난 3月20日 역시 「핀란드」를 訪問한바 있고 北韓은 北歐理事會 5個會員國에 對한 重點的인 外交攻勢를 強化해 가고 있다.

또 지난 1月5日 北韓의 前外務省 副相이자 現駐蘇大使로 있는 權희경은 15日間의 觀光비자를 가지고 非公式的으로 「프랑스」를 訪問했다.

그동안 北韓은 「프랑스」에 對하여 非公式的인 人事交流, 貿易關

係등을 유지시켜 왔었지만 權과 같은 現職高位外交官을 「프랑스」에 派遣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注目を 끌게 하는 것이다. 北韓은 68年4月 「빠리」에 民間級 貿易代表部를 設置한 以來 雙方貿易關係를 擴大시키는 一方 北韓民間級貿易代表部の 公式機構로의 地位昇格을 위해 努力해 왔었다.

또 北韓은 「프랑스」共産黨을 비롯한 左翼勢力과의 提携를 強化하여 69年 12月엔 「프랑스」北韓親善協會를 組織, 이를 통해 北韓의 政治宣傳을 展開하는 한편 「프랑스」政界內에 親北韓勢力을 扶植, 「프랑스」政府의 親北韓政策誘導에 注力해 왔었다.

그리고 72年2月엔 127名으로 構成된 「平壤万寿台芸術団」을 「프랑스」에 派遣하였고 71年 11月엔 「빠리」에 北韓宣傳冊子만을 專門적으로 取扱하는 書店을 設置하는 등 소위 人民外交의 기반을 構築해왔다.

이와같은 北韓의 對仏接近에 대해 「프랑스」는 韓國과의 傳統的인 友好關係를 계속 維持強化한다는 基本立場엔 變함이 없지만 그러한 基本立場의 테두리內에서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하는데 있어서 맨 마지막 國家가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立場에서 70年度부터는 北韓에 대해 비록 國家承認은 하지 않으면서도 갖가지 特惠措置를 取해주고 있는 實情이다.

그런데 北韓이 「프랑스」에 대해 그와같은 接近策을 쓰고 있는 底意는 ①「프랑스」의 對外政策을 擴大시켜 北韓承認을 促求하자는 것이고 ②「프랑스」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는 「아프리카」旧植民地諸國에 대한 침투에 「프랑스」의 影響力을 利用하고 ③西歐地域

諸國들과의 關係改善의 교두보를 만들고 ④北韓의 經濟計劃遂行을 위해 西歐의 先進資本技術을 導入하자는 點등으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平壤萬壽台藝術團」은 지난 3月15日부터 24日까지 英國公演을 마치고 3月25日엔 「이탈리아」를 訪問 公演을 마친바 있다.

西獨에서는 「反帝國主義鬭爭의 날」을 開催하여 北韓을 紹介하는 行事を 가졌고, 「스웨덴」取材班이 撮影한 北韓紹介映面의 T V放送을 한바 있고 또 「프라하」를 통한 各種 宣傳物을 要路에 郵送하고 있다.

결국 北韓의 對西歐接近은 南北韓對話의 開始를 逆利用하고 世界各國의 分斷國同時承認 추세, 中共의 「유엔」加入과 國際的地位向上의 背景下에 ①西歐諸國과의 關係改善 및 交流擴大 ②余他國家들에 대한 北韓의 接近試圖에 그들 西歐列強의 影響力利用 ③北韓自體의 國際的 地位確保와 相對的인 韓國地位의 低下 ④南北韓의 現狀固定化와 두개의 韓國現實化를 目的으로 推進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北韓의 對「아프리카」·中東關係

68年 12月에 獨立된 「赤道기너」를 포함하여 現「아프리카」國은 43個國을 保有하는 大陸으로 그중 「로디시아」를 除外한 42個國이 「유엔」會員國으로 되어 있어 1百32個 「유엔」會員國의 約 三分之一을 차지하는 國際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北韓의 「아프리카」諸國에 대한 外交關係現況을 살펴보면 우선 「아랍·아프리카」6個國中 「에집트」, 「수단」, 「알제리아」 3個國에 常駐大使館, 그리고 「리비아」에는 貿易代表部를 두고 있다.

그리고 中東의 「아랍」諸國을 포함한다면 北韓은 「이락」, 「시리아」, 「예멘」, 南「예멘」등에 大使館을 두고 「레바논」이나 「쿠웨이트」에는 貿易代表部를 두고 있어 中東「아랍」諸國에 대한 進出은 우리 보다 앞서 있는 形便이다.

그 가장 큰 理由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國交를 맺고 있다는 點이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中東外交의 次元에서 보면 우리의 外交의 幅을 넓히는데 阻害要因이 되고 있는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北韓의 黑「아프리카」諸國과의 外交關係 狀況을 보면 58年 「기니아」를 시작으로 70年에 들어 中央「아프리카」, 赤道「기니아」 71年에 「시에라·레온」, 「말타」, 72年에 「카메룬」, 「루완다」 「세네갈」, 「어퍼·볼타」, 「자일」, 「말라가시」, 「토코」등과 차례로 國交를 맺어 현재 20個國과 修交를 하게 되었고 東「아프리카」의 「우간다」등과는 修交合意를 본바 있다.

그런데 「우간다」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 「아디·아민」大統領이 國內의 外國人들을 추방했을때 勞動新聞에서는 마치 그것을 帝國主義者의 앞잡이를 追放한양 支持하는 記事를 낸 일이 있었는데 最近엔 또 金日成이 「아민」大統領을 초청까지 하여 「아민」大統領은 適切한 時機에 北韓을 訪問할 것이라고 招請을 受絡하게 되었다. 또 「차드」에 대해서는 71年8月 쿠데타 未遂事件과 관련하여 「에집트」, 「리비아」등과 斷交했을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72年 11月28日 「차드」가 「이스라엘」과 斷交를 하게되자 勞動新聞은 「차드」共和國이 美帝의 앞잡이 「이스라엘」과 外交關係를 斷切했다는 式으로 크게 報道하여 남의 나라의 內政問題에까지 秋

波를 던져가며 接近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간다」나 「차드」는 우리의 外交關係를 맺고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相對國들을 南北韓同時承認쪽으로 몰고 가기위해 가진 努力을 다 기울이고 있다. 北韓은 72年 4月부터 11日까지 불과 8個月동안에 우리와 이미 外交를 맺고 있는 5個國(어퍼, 볼타, 우간다, 카메룬, 세네갈)과 새로운 外交開設에 合意했고 「우간다」만 빼놓고 이미 外交가 樹立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北韓이 70年代에 들어와 對中立國外交 특히 對「아프리카」外交의 重要性을 再認識하고 이 地域에 대한 外交를 強化하고 積極적으로 活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証左이다.

最近의 動向을 보면 北韓教育部長 金錫基가 引率하는 代表團은 「아프리카」를 巡訪 「세네갈」, 「잠비아」, 「기네」, 「시에라레온」 「말리」, 「니제르」를 돌아다녔고 지난 3月2日 「잠비아」와 外交關係樹立에 合意를 보았다.

또 金明洙外交部副部長을 團長으로 한 代表團은 南「아프리카」를 돌면서 「보츠와나」, 「말라위」, 「모리셔스」, 「말라가시」, 「탄자니아」, 「에치오피아」등지를 訪問하고 지난 3月16日엔 領事關係에 있던 「모리셔스」와 外交關係樹立에 合意를 보았다.

그리고 金竜沢外交部副部長을 團長으로 하는 代表團은 지난 2月부터 3月初에 걸쳐 「브라자빌·콩고」, 「자이레」, 「카메룬」, 「赤道기니」를 各各 巡訪했다. 한편 副主席 康良煜이 이끄는 代表團은 지난 2月15日 中東의 「이락」訪問을 비롯하여 「시리아」, 「에집트」, 「소말리아」, 「탄자니아」, 「잠비아」를 訪問했고 北韓 最高人民會議 黃性燁을 團長으로 하는 議會代表團이 역시 中東을 訪問 「에집트」, 「예멘·아랍」共和國, 「튀니시아」, 「레바논」, 「리비아」를 돌아다녔는데 同代表團은 지난 3月24日 「리비아」와 外交關係樹立에 合意하였다. 「아프리카」大陸의 特性은 다른 어느 大陸보다도 戰後의 冷戰生理를 止揚하고 脫 이데오로기 實利優先의 立場을 追求하고 있다는 点이다.

그리고 「아프리카」大陸의 未開 後進性에도 不拘하고 國際舞台에서의 比重은 날로 增大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아프리카」大陸進出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理由도 一次的으로는 「유엔」을 비롯한 國際機構에 参与하여 오래동안 소외되었던 孤立的位置를 벗어나 스스로의 國際的地位向上을 期하기 위해 「아프리카」諸國의 同調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北韓의 對「아프리카」中東地域에 대한 積極적인 進出攻勢는 앞으로도 訪問, 招請外交, 經濟援助, 文化交流등을 통해 더욱 더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 보인다.

특히 北韓은 지난 4月15日 中東의 「이란」과 外交關係樹立을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對中東外交에 警鐘을 울리게 한 바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는 對「아프리카」中東外交에 있어 從來와 같은 儀禮적이고 名分的인 것보다도 雙方間에 互惠的實利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가지 分野에서의 實質的協力を 통해 기왕에 確保해논 우리의 外交網을 쉽사리 잠식당하지 않도록 倍前의 努力이 要請되는 것이다.

가령 「이란」의 경우는 越盟을 除外한 모든 社會主義國家와의 外交關係樹立의 일환으로 北韓과 修交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時期的으로 「유엔」總會를 얼마 안남겨 놓고 그와같은 失點을 한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北韓의 對「유엔」關係

애당초 北韓의 對「유엔」基本立場은 韓國問題에 對한 「유엔」의 決議에 對해 일체 無視할뿐더러 「유엔」의 權威와 權能마저 否定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近年에 이르러 北韓은 對「유엔」政策에서 新축성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中共의 「유엔」加入과 그리고 「유엔」의 普偏性原則에 따른 「유엔」의 構造的 變化에 편승하여 「유엔」이라는 世界最大의 國際機構에 進出함으로써 자신의 國際的地位 向上을 꾀하기 위한 底意에서라고 하겠다.

그리고 北韓은 「유엔」의 普偏性原則의 名分을 앞에 내세워 韓國과 同席함으로써 南北韓의 對等한 國際的 地位를 確保하고 또 東西獨의 경우와 같은 分斷國同時 「유엔」加入에 편승하여 「유엔」同時加入을 實現시키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駐韓「유엔」軍 철수와 「언커크」解体를 「유엔」決議로 可決시키려는 企圖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北韓은 「유엔」에 對해서 從前과 같은 직접적인 非難을 피하고 그대신 美國이 「유엔」을 惡用하고 있다고 間接적으로 非難하게 되었다.

71年 1月 1日 勞動黨 5期 3次 全員會議에서 採択한 對外政策의 戰術的轉換에 따라 北韓은 72年 1月 「유엔」이 韓國問題에 對해 「正當한 方針」을 취해야 한다고 유연성을 보였으며 4月에는 27次 「유엔」總會에의 無條件同時招請에 應하겠다는 立場을 表明했었다.

北韓은 昨年 7月 31日 字 政府声明을 통해 「알제리아」案에 대해 全적으로 支持하는 声明을 발표하면서 『「유엔」에서 韓國에 關한 問題가 討議될 때에는 当事者인 北韓代表가 妥當히 參加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고 同時招請支持의 立場을 되풀이 했던 것이다.

그러나 昨年에 韓國問題討議가 또다시 1年間 延期되는 決議案이 通過되자 그 責任을 美國側에 돌리는 声明을 발표했는데 이때 美國政府라는 呼稱을 使用했으며 이는 對美接近政策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北韓은 現在 110餘個의 一般國際機構에 加入하고 있으나 「유엔」傘下 國際機構에는 參加하지 못하고 있다.

北韓은 지난 5月 8日부터 「제네바」에서 열렸던 WHO (世界保健機構)에 加入申請을 냈고 5月 17日 贊成 66, 反對 41, 기권 22, 불참 2로 급기야 通過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에 앞서 北韓은 71년에는 「유엔」傘下 國際機構인 IPU (万国郵便聯合), ITU (國際電話通信聯合), WMO (世界氣象機構)에 加入申請을 냈었다가 좌절되고 말았었다.

그러나 北韓은 비록 非「유엔」機構이기는 하나 IPU (國際議員聯盟)에 지난 4月 28日 加入되었다.

72年 「로마」에서의 IPU總會에서는 北韓加入保留案이 50對 41로 可決된 바 있었지만 今年에는 韓國과 美國등 自由友邦의 沮止 努力에도 不拘하고 「이탈리아」가 提案한 北韓의 IPU加入案이 57對 28, 기권 20으로 通過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北韓이 特別히 「유엔」傘下의 國際機構에 加入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理由는 그러한 機構에 들어감으로써 「유엔」에 參席할 수 있는 前段階的인 既定事實을 만들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3年은 特別히 「유엔」舞臺에서 分斷國問題處理에 있어 東西兩獨 同時加入이라는 새로운 類型이 創出되는 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會員國들이 東西獨의 경우에서 어떠한 影響을 받고 韓國問題處理에 임할 것이냐 하는것이 우리의 至大한 關心이 아닐 수 없다.

올해에도 韓國은 「유엔」總會에서 韓國問題가 討議되는 것을 3年째로 延期하기 위한 外交活動을 벌이기 위해 美國 및 그밖의 友邦國들과 戰略을 짜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바이지만 設사 今年에 同案이 可決된다 하더라도 明年에는 더욱 그 展望을 豫測하기 어려운 問題인 만큼 어차피 그와같은 延期策은 時間을 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머지않아 對「유엔」政策을 變更해야만 할 때가 올 것 같다.

다만 그 時期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가 問題이며 그때까지 우리는 가장 効果的이고 綜合的인 對策을 마련하기 위해 注力해야만 할 것이다.

더우기 北韓의 WHO加入이라는 「유엔」傘下 機構에의 최초의 參與로 일단 「유엔」總會參席의 閥門이 열렸다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今年 「유엔」總會에 對한 對備策을 이제 時急히 講究해야만 하게끔 된것 같다.

結 論

지금까지 보아 온 것 처럼北韓의 對外宣傳은 共產主義 宣傳의 手法을 그대로 따르면서 對外宣傳의 原則에는 아무런 變化를 볼 수 없다. 最近에 들어와北韓의 對外宣傳 方法의 變化는 그들의 外交政策에 따른 戰術的인 變化일 뿐이다.

北韓은 中共의 國際勢力 신장에 편승하여 國際的 地位向上과 7·4 南北共同聲明을 계기로 위장된 平和 宣傳攻勢를 벌이고 있으며 西歐에 대한 집요한 접근을 試圖하는 한편 對日接近을 통한 等距離 外交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함께 巡訪外交를 強化하여 修交國의 擴大에 努力하는 한편 文化藝術 體育을 통한 침투를 企圖 하면서 해당지역 國家의 特殊한 情勢發展을 勘案하여 그에 편승, 영합하고北韓의 發展相과 平和 이미지 扶植에 注力하는 對外宣傳 活動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北韓의 對外 宣傳方法의 變化에 대한 우리의 對抗宣傳 (Counter Propaganda)은 어떻게 遂行되어야 하는가? 우리의北韓에 對한 對抗宣傳政策을 對外弘報政策으로 부른다면 우리의 對外弘報政策을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條件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① 對外 弘報의 基本方向의 定立 ② 對外弘報體系의 組織化 및 能率化 ③北韓의 對外 宣傳에 대한 正確한 把握 및 繼續的이고 깊이 있는 研究

④ 効率的인 弘報活動을 遂行할 수 있는 充分한 豫算 編成

(1) 對外弘報의 基本方向 定立 : 自由民主主義制度가 共產主義制度보다 優越하다는 根本 原則 아래 對外弘報의 基本方向이 定立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共產主義者들과의 對抗宣傳을 벌이고 있으므로 對抗宣傳에 이기기 위해서는 自由民主主義의 長點을 強調해야 하는 것이다. 北韓은 韓國을 誹謗하는 宣傳活動을 벌이고 있는데 宣傳의 原則에 따라 北韓의 韓國 誹謗 宣傳이 虛偽宣傳이라는 점을 對抗宣傳할 수 있는 方向으로 定立해야 한다. 왜냐하면 北韓의 對外宣傳이 虛偽인 것으로 밝혀질 때 全體宣傳이 說得力을 잃기 때문이다. 그리고 對外宣傳이 事實을 뒷받침하지 않을 때는 生命이 없을 뿐 아니라 相對方의 強力한 反撥과 저항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宣傳은 reinforcement의 機能을 함으로 오히려 信念과 態度를 固定시킨다. 이같은 事實은 第二次 世界大戰中 日本의 對美宣傳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日本은 美國을 正確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고 正確한 映像을 못갖고 있었다. 日本의 對美宣傳 活動은 大體로 ① 美國의 戰爭目的의 欠如 ② 美國國民의 頹廢性, 物質主義 ③ 美國國民과 政府의 不一致 ④ 聯合國에의 不信을 集中宣傳하는데 초점을 모았다. 그러나 對外宣傳의 原則은 相對國國民의 信念 態度등을 一定한 豫期된 方向으로 誘導하여 Consensus를 얻는 것으로 쉽게 말해 相對國의 實情, 相對國民의 態度와 性向에 맞추지 않으면 안되는데도 이같은 日本의 對美宣傳으로 오히려 美國國民들의 反撥을 가져왔던 것이다. 日本은 美國

国民의 頹廢性, 物質主義를 그들의 精神主義와 比較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것은 美国의 個人主義와 文明에 對한 理解가 淺薄한 것이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美国사람들은 日本의 精神主義를 야만인들의 미신적인 신앙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으며 높은 수준의 物質文明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美国文化의 外緣이고 어느 意味에서는 「主義」「思想」으로서 이것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분연히 일어서기 때문이다. 또 美国國民과 政府와의 不一致를 宣傳의 對象을 삼은것도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美国은 自由民主主義國家로 議會와 政府의 알력, 政治家끼리의 競爭, 政府와 新聞의 對立, 勞働者들의 스트라이크등 당시 日本人들의 눈에는 不一致의 極으로 보여 反政府 運動까지 推進하려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民主主義이며 이같은 公然한 意見의 對立은 當然한 것이며 오히려 이같은 意見의 對立을 可能할 수 있게 하기 위해 美国의 民主主義를 지키는 것이 戰爭의 目的이라고 까지 생각했던 것이다.

(2) 對外 弘報體系의 體系化 및 能率化: 對外弘報의 執行機關 및 支援機關의 効率的인 調整으로 對外弘報 效果의 極大化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對外弘報의 Content에서 統一되지 않으면 効率的인 宣傳의 效果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逆機能으로 作用하며 組織이 體系化되지 않고는 正確한 Content로 繼續的이고 大量的인 弘報活動을 遂行할 수 없다. 對外弘報體系의 能率化를 위해서도 體系化는 시급하다.

(3) 北韓의 對外宣傳에 대한 正確한 把握 및 繼續的이고 깊이 있는 研究 : 現代의 對外宣傳은 組織的이기 때문에 Counter Propaganda 를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對外宣傳에 대한 正確한 理解없이 는 어렵다. 正確한 理解를 위해서는 繼續的이고 깊이 있는 研究가 隨伴되지 아니하면 不可能하다. 對外宣傳에 있어서 斷片的인 情報에 따른 宣傳은 거의 效果가 없다. 共產主義 宣傳原則은 持續的이고 반복적이다.

(4) 效率的인 弘報活動을 遂行할 수 있는 充分한 豫算編成 : 앞서지적한 세가지의 政策을 樹立하고 遂行하기 위해서는 이에 必要한 豫算의 뒷받침이 따르지 않고는 不可能하다. 우수한 조직, 우수한 宣傳者, 우수한 宣傳研究者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豫算의 充分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效果的인 對外宣傳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이상4가지 조건에서 특히 ① 自由民主主義의 長點을 살펴야 하고 ② 充分한 豫算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상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머지 2개의 조건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